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6. 12.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교수 김 성 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6. 12.

연구책임자	김 성 순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최 명 식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강사)
연구보조원	김 인 지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강사)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제 출 문

국회예산정책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과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교수 김성순

연구 요약

중국을 최근 성장속도의 둔화와 함께 그에 맞는 적절한 경제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투자에서 소비가 주도하는 내수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변화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국내 최종수요가 얼마만큼 성장해 왔으며, 그 최종수요 및 산업별 수입생산의 구성의 변화가 어떠한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의 산업구조 및 주요 경제·산업 정책의 변화 추이를 실제 DB를 이용하여 먼저 살펴보고, 중국 내수의 성장과 구성 변화가 한국 국내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한중 분업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각 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중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최근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에 대한 최근 DB 및 문헌자료들을 검토해 정리하고, 산업연관 구조모형에 기초한 장기균형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상기의 산업구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산업별로 그 영향이 차이를 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수출산업의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정부의 각종 내수 부양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수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국은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것이고, 내구재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내수가 증가하고, 기술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집중함을 고려하며, 산업구조 고도화로 한중 교역관계가 경쟁적 수평적인 분업관계로 바뀌면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비교우위가 높은 첨단 IT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전자제품 등 수출 주력품목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급성장하는 해외직구는 한국의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최근 온라인 쇼핑이 큰 규모로 급성장한다. 따라서 온라인 수출의 확대 및 관련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콘텐츠와 의료바이오, 프랜차이즈, IT서비스 등의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관광,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의료, 콘텐츠, 유통 등 8대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최종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산아제한 완화에 따른 유아용품 수요 증대가 예상되므로 유아 대상의 엔젤산업 등을 공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 거점 도시들을 내수시장의 진출기회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정부의 ‘13.5 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현대화, 에너지, 인터넷기업, 서비스업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우위를 지니고 있는 ‘13.5 계획’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중국제조 2025’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 중 한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내수시장 구조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생산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내구재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추세에서 서비스는 제조업품의 중간재, 제조업품은 서비스의 중간재로 사용됨을 활용해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너지를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중국이 성장둔화로 인해 경기부양, 내수중심 산업화, 산업 고도화, 국내 완결형 산업화로 변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는 글로벌 가치사슬 축소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내수용, 서비스, 첨단산업 중심의 수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재 수출확대(관련 부품·부분품과 자본재), 내수용 수출확대(부품·부분품 중간재, 내구재 소비재), 수출경쟁력 높은 산업의 개발과 고급화(첨단제품 개발 수출, 중간재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강조된다. 또한 전자통신, 화학, 기타 기계·장비 등 업종의 수출구조는 다변화 및 차별화하고, 의약품, 의류 등의 업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중국과의 수출과 투자 등 교류에 관한 큰 틀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앞으로 이를 보다 실천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시적 측면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 차

연구 요약	i
표 목차	iii
그림 목차	iv
 I. 서 론	 1
II.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및 주요 경제·산업에서 정책적 변화 추이	4
1.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4
1) 내수구조 변화	4
2) 생산 및 수입구조 변화	8
2. 중국의 경제·산업정책 변화 추이	20
III.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분석	23
1. 선행연구 및 분석경로도	23
1) 선행연구	23
2) 분석 경로	25
2. 현황분석	29
3. 구조모형 및 분석결과	34
1) 모형과 분석방법	34
2) 실증분석 결과	37
IV.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 관리 대응방안	44
1. 중국 수입시장과 한국 수출산업의 전망	44
2.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48
V. 결론 및 시사점	53
1. 내용 요약	53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59
참고문헌	62

표 목 차

<표 2-1> 『13.5 계획』 강요 혁신 발전 관련 주요지표	22
<표 3-1> 선행연구 요약	26
<표 3-2> 중국 수입의 용도 및 형태별 비중의 추이	30
<표 3-3>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용도별 비중의 추이	31
<표 3-4>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액 비중	32
<표 3-5> 중국에서 가공단계별 한국제품의 내수용 수입 점유율	33
<표 3-6> 중국 최종수요의 실제증가가 한국의 성장에 미친 영향(2014년)	34
<표 3-7> 자료의 설명	36
<표 3-8> 자료의 기초통계량	37
<표 3-9> ADF 단위근 검정	37
<표 3-10> 공적분 검정	38
<표 3-11> 중국 최종소비(가계)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39
<표 3-12> 중국 최종소비(가계와 정부)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39
<표 3-13> 중국 최종소비(가계)가 산업별로 한국에 미친 영향	41
<표 3-14> 중국 서비스 수입과 한국 서비스 수출 간의 현황(2000년대)	42
<표 3-15> 실증분석 결과 요약	43
<표 4-1> 중국의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최근 특징	47
<표 4-2>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51

그 립 목 차

〈그림 2-1〉 중국 내수시장 규모의 추이	5
〈그림 2-2〉 제조업 산업별 내수시장이 전체 내수시장의 비중	5
〈그림 2-3〉 비내구재 내수 시장 추이	7
〈그림 2-4〉 내구재 내수 시장 추이	7
〈그림 2-5〉 서비스 내수 시장 추이	8
〈그림 2-6〉 중국의 수입시장 성장 추이와 구조 변화 (1993-2015)	9
〈그림 2-7〉 중국의 제3차 산업이 전체산업의 비중 추이	10
〈그림 2-8〉 중국 제3차 산업의 고용 비중 추이	11
〈그림 2-9〉 중국 전체 수입액의 무역방식별 규모 추이	12
〈그림 2-10〉 중국 내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추이(2005-2011)	13
〈그림 2-11〉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규모 변화	14
〈그림 2-12〉 중국 수입시장의 가공단계별 구조(2000-2015년)	15
〈그림 2-13〉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의 가공단계별 비중(2000-2015년)	16
〈그림 2-14〉 중국 전체 수입시장의 업종별 구조	16
〈그림 2-15〉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업종별 비중 추이	17
〈그림 2-16〉 주요국 대 중국 수출이 중국 수입에서의 비중	18
〈그림 2-17〉 중국의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추이	19
〈그림 2-18〉 중국 서비스무역 수입 추이	19
〈그림 2-19〉 한국 서비스무역 수출 추이	20
〈그림 3-1〉 중국 수출과 성장률의 둔화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	27
〈그림 3-2〉 중국 경제여건과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	28
〈그림 3-3〉 실증분석의 방법 및 목적	36
〈그림 4-1〉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수출 강화와 성장 지속성	44

I. 서 론

중국 경제는 1970년대 말 개방정책 이후 약 30년 동안 생산과 투자, 그리고 수출을 중심 동력으로 하여 고속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그 성장 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의 생산 및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 부족을 겪고 있는데다가 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앞으로는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중국 내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예전만큼 가격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무리한 고속성장보다는 5-7%대의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최근 성장속도의 둔화와 함께 중국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투자에서 소비가 주도하는 내수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13차 5개년 계획이 통과되어, 그 정책목표와 발전이념, 주요 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주도한 첫 경제발전 정책이자, 2020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小康社會)¹⁾’ 진입을 위한 마지막 5개년 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이전의 ‘12.5 계획’ 내용과 비교한다면, 샤오캉 사회건설 마무리 단계를 위한 산아제한완화, 신도시화 건설, 인프라 투자, 공급측면의 개혁 등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성장 동력의 확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경제, 산업 및 정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의 발전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병행 추진하고,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중속성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구조 및 대외적으로는 무역구조의 혁신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의 양회에서 무역구조 개혁을 언급하며 우진우출(優進優出)²⁾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

1)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함.

2) 우수한 제품의 수출입을 의미함.

의에서는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국산의 품질 혁신을 골자로 하는 공급측면의 개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는 무역대국(大國)에서 무역강국(強國)으로의 전환 기조를 내걸고, 값싼 노동력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이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내수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소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될 잠재적 시장규모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중국 경제 변화를 배경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국내 최종수요가 얼마만큼 성장해 왔으며, 그 최종수요 및 산업별 수입생산의 구성의 변화가 어떠한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수의 성장과 구성 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한국과 중국이 중심된 국제적 분업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014년 말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각 산업들이 주는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전반 및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수출 전략에 대한 정책 대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속성장 시대를 맞는 새로운 생산구조 및 무역구조 혁신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그리고 수출 중심 성장에서 내수 중심으로 더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완결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정리 및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이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영역으로 투자 확대 및 현지 공급 중심의 수급구조로 재편됨에 따라 중국정부가 육성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나 첨단기술 분야의 수출 등이 강조되고 있다.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년-2010년)부터 산업고도화를 경제 산업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첨단산업, 소재 및 부품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고, IT와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기업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유통 등 산업의 전방위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료, 부품, 최종재, 유통, 서비스 등이 중국 내에서

완결되는 완결형 산업구조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방법과 지표, 중국 산업의 최근 동향 그리고 관련 분석결과들을 검토하고 그 영향력에 대해 다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 수출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보고 대중국 수출 전략이나 무역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최근 변화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에 대한 최근 문헌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해보고, Bems et al.(2011)의 산업연관 구조모형에 기초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기균형 공적분 관계를 이용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을 검토하고,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의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기초자료 DB를 직접 분석하여 그 구조 변화 추이와 특징을 도출하고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구조변화도 분석하고 있고, 연구방법도 산업연관 구조모형에 기초한 장기균형관계를 사용하여 산업별 영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양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전체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I장의 서론에 이어, 제II장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리·요약하고 향후 산업구조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제III장에서는 중국경제 산업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 분석들을 정리해보고 구조모형과 통계 DB를 이용하여 주요 산업별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제IV장은 분석 결과물을 기초로 중국 산업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면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제V장에서는 요약하여 결론을 내고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국 산업구조 및 주요 경제·산업 정책 변화 추이

본 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내수 시장의 규모별, 산업별로 살펴보고 아울러 무역구조의 변화를 수입구조 측면에서 형태별, 용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의 변화도 추이를 통해 살펴본다.

1.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주요 내용

1) 내수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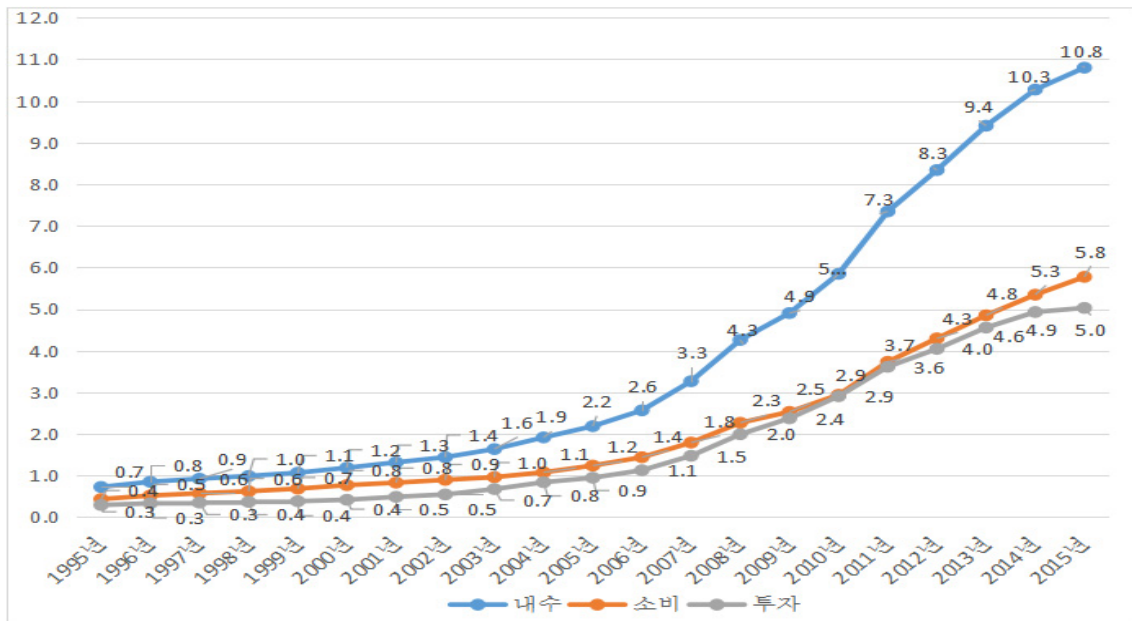
중국의 1995년 이후 최근 내수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최근 20년 동안 내수시장은 급성장하여 1995년 0.7조 달러(6.1조 위안)에 2015년 10.1조 달러(67.3조 위안) 규모로 14배(11배) 증가하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성장률은 2009년 이후 다소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현재 98.1%를 점하고 있다.

내수시장은 지출항목 면에서 크게 최종소비와 투자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 소비가 투자를 상회하고 소비와 투자간 격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소비시장은 투자 대비 2배 가 가까운 규모였으나 중반부터 투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2010년에는 소비와 투자의 규모가 거의 비슷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는 소비가 다시 투자를 능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 투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0년대 후반에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최종소비가 투자보다 증가 속도가 좀 낮았지만 세계불경기 상황에서도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내수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수출을 중국 내수를 겨냥한 산업구조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 제조업의 산업별 내수 규모를 전체 내수시장에서의 GDP 대비 비중으로 그 추이를 9개 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제조업 부문은 1995년에서 2011년 사이에 컴퓨터, 전자기기와 자동차의 비중이 큰 성장세를 보인 반면 다른 산업의 내수시장에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컴퓨터·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후 성장세가 멈추어 낮

〈그림 2-1〉 중국 내수시장 규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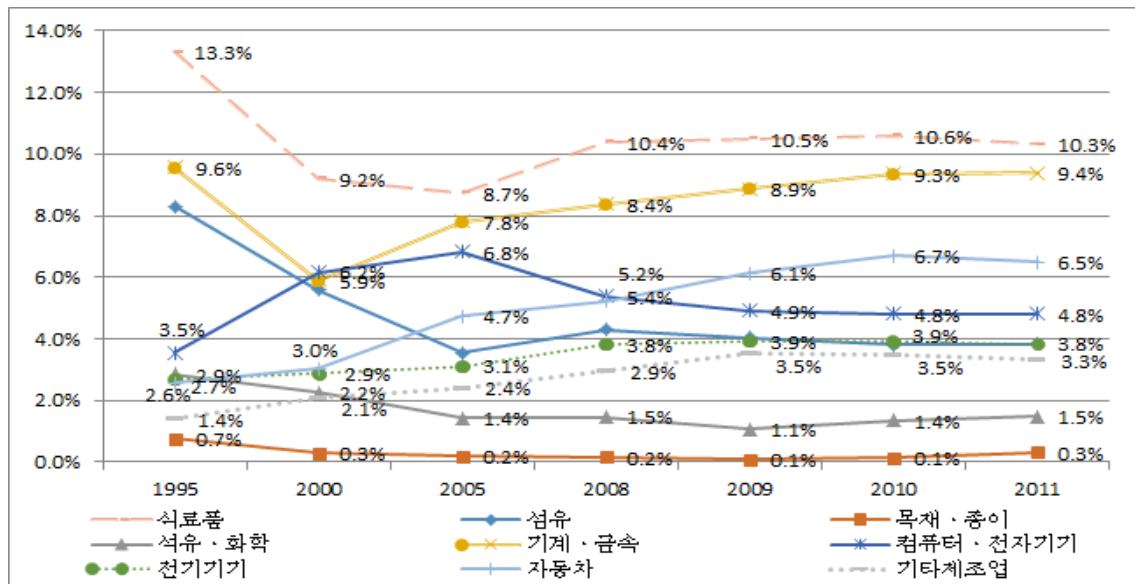
(단위: 조 달러)



자료: 중국 통계국, CEIC.

〈그림 2-2〉 제조업 산업별 내수시장이 전체 내수시장의 비중

(단위:%)



자료: CEIC China Premium Database

은 수준에서 그 비중이 일정하고, 식료품과 기계·금속산업의 내수시장 비중은 각기 1, 2위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2005년 사이에 그 비중이 낮아졌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현재 제조업 산업별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식료품 10.3%, 기계·금속 9.4%, 자동차 6.5%, 컴퓨터·전자기기 4.8%, 전기기기 3.8%, 기타제조업 3.3%, 석유·화학 1.5%, 목재·종이 0.3% 순이다.

다음 개별 산업들의 내수 시장 추이를 제조업부문을 비내구재와 내구재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그림 2-3>과 <그림 2-4>와 같다. <그림 2-3>은 1995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의 비내구재 내수시장의 산업별 GDP 대비 규모와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내구재 내수시장의 규모는 5개 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때 식료품과 농림어업이 두드러지게 크고 다음 섬유, 석유·화학, 목재·종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1년 기준 식료품 5,429억 달러, 농림어업 4,401억 달러 규모이다. 이를 성장세로 보면 목재·종이가 2009년 이후 2011년 사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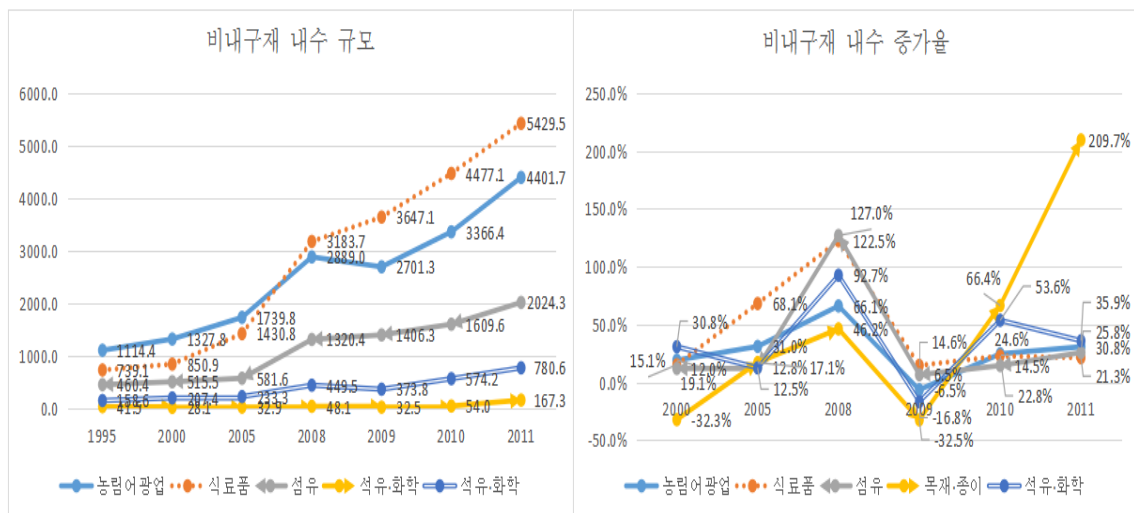
다음, 1995년-2011년 기간 동안 내구재 내수 시장의 변화 추이를 5개 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 산업별 GDP 대비 규모의 크기 변화를 보면, 기계·금속이 그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 자동차, 컴퓨터·전자기기, 전기기기, 기타 제조업 순으로 되어 있다. 2011년 기준 규모를 보면 기계·금속 4,946억 달러, 자동차 3,417억 달러, 컴퓨터·전자기기 2,533 억 달러, 전기기기 1,744억 달러이다. 이를 성장률의 크기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부문이 2000년-2011년 기간 동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 성장률 격차도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전자기기가 2000년에는 가장 증가율(189.3%)을 보이다가 급속히 감소(2011년 24.5%)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다음 기타제조업도 2008년 반등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자동차, 기계·금속은 2005년 급증 이후 역시 감소 추이(2011년 16~24%)를 보이고 있다.

이번엔 1995년-2011년 기간 동안 서비스 산업의 내수시장 변화 추이를 5개 산업으로 나누어 GDP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서비스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는 산업은 2011년 기준으로 사업 및 기타 서비스 14,001억 달러이며 다음 금융·부동산 6,278억 달러, 도소매·숙박·음식 3,200억 달러, 통신 899억 달러, 운수 86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난다. 그 성장률을 살펴보면, 금융·부동산이 2000년에는 다른 산업보다 현저히 큰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다른 산업과 비슷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 서비스 산업은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앞으로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수출과 투자 등 관심을 가져할 산업이다.

〈그림 2-3〉 비내구재 내수 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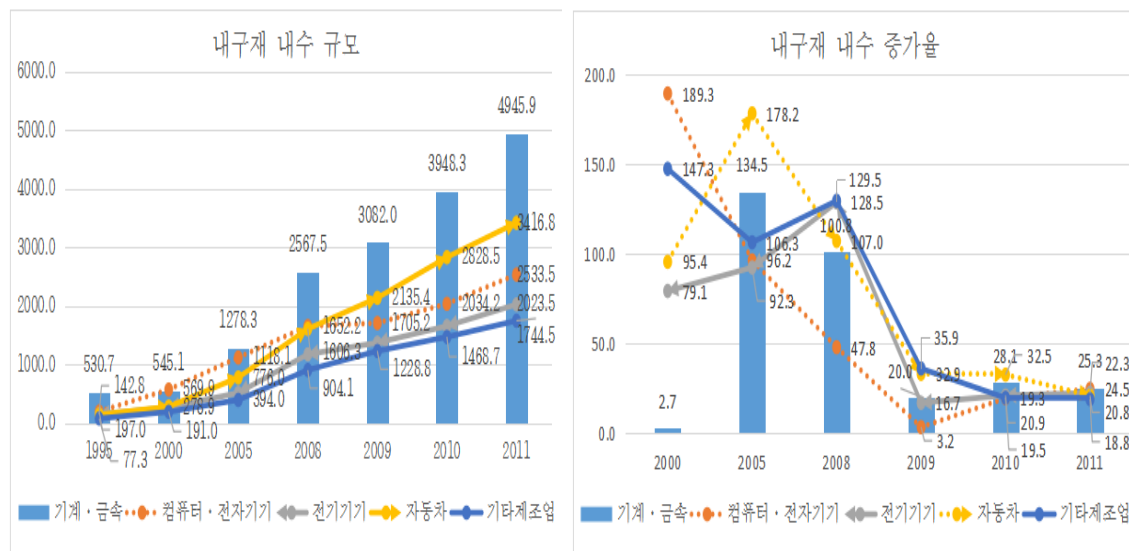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자료: ICIO Table

〈그림 2-4〉 내구재 내수 시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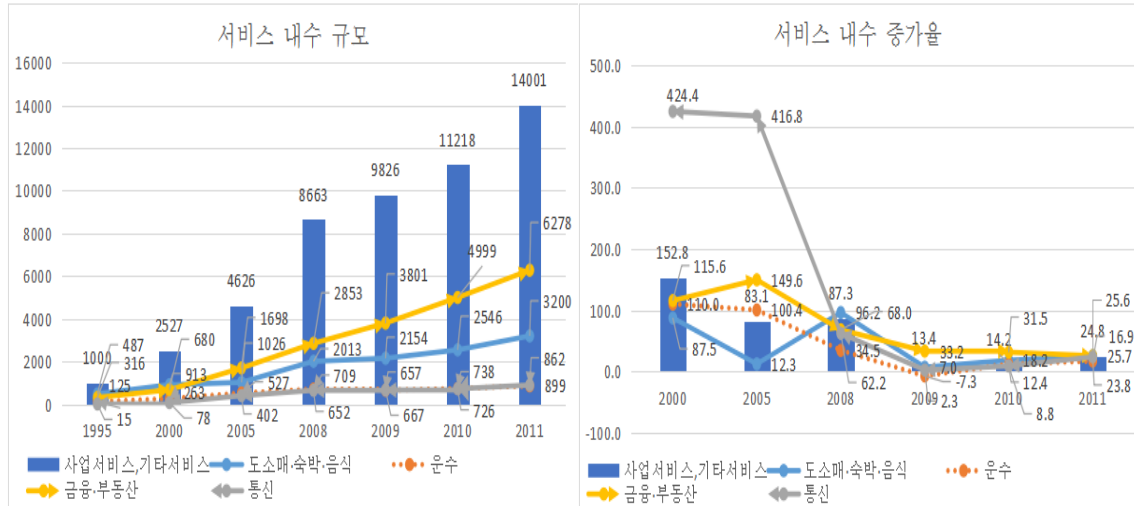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자료: ICIO Table

〈그림 2-5〉 서비스 내수 시장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ICIO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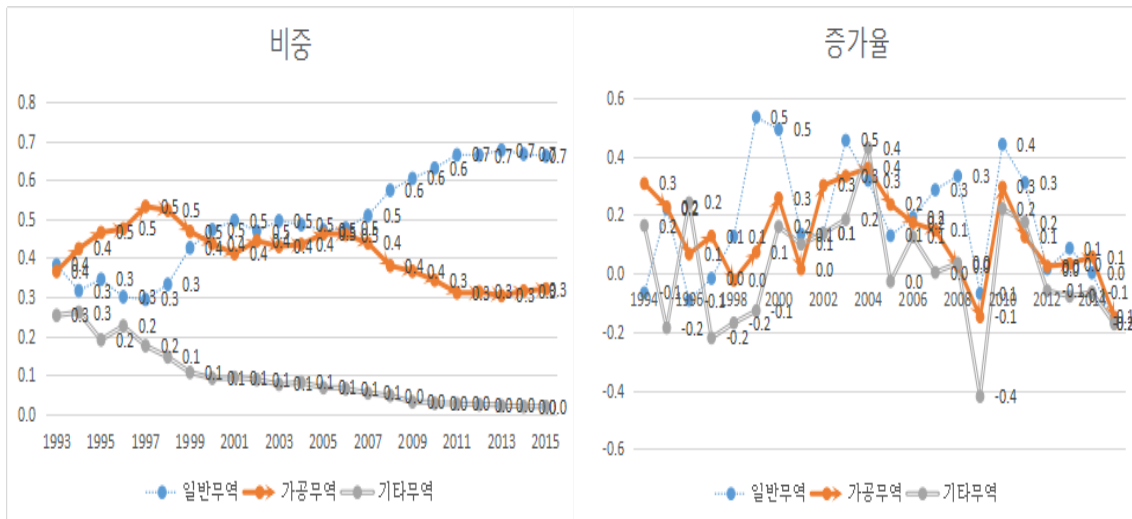
2) 생산 및 수입구조 변화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감 요인 분석하고, 대중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유용하다. 특히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려는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향후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25%의 속도로 성장하던 중국의 수입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성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국의 수입 감소가 2010~11년 기간에 빠르게 회복하는 듯 했으나, 2012년 이후 수입시장의 성장 둔화가 다시 나타나면서 한 자리 수의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중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1조 9,603억 달러로 전년대비 0.5% 성장하는 데 그쳤다.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의 변화와 특징을 보기 위해 무역방식별 형태로 구분해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수용 수입에 해당 하는 일반무역의 수입 비중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50.5%),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공무역 수입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수입시장 비중이 일반무역 70%, 가공무역 30%이다. 이는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추진 중인 단순 가공무역 억제조치

의 성과가 발현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선진국 중심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수출 물량 생산에 필요한 가공무역용 수입도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중국의 수입시장 성장 추이와 구조 변화 (1993-2015)



자료: CEIC자료 계산 정리

중국 정부가 가공무역을 규제하는 데에는 가공무역이 인건비 상승과 같은 요소비용 상승에 취약하고, 기술 유입 및 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으며,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용이함은 물론,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가공무역 수출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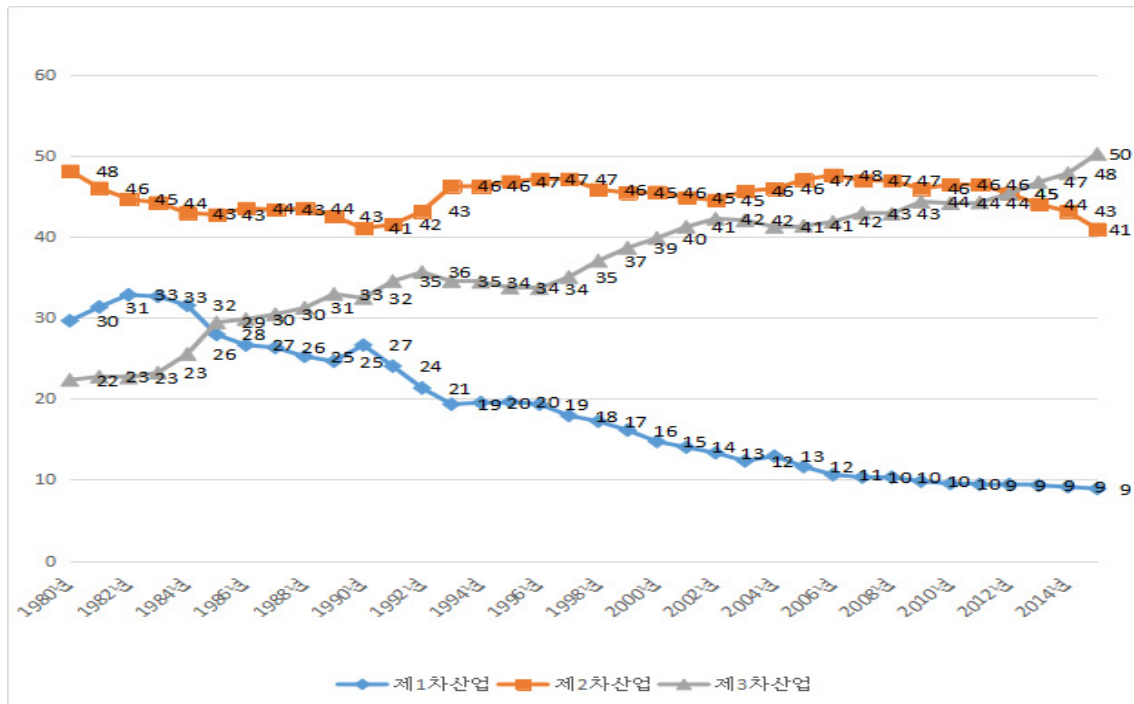
중국의 산업구조적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제1차 산업 비중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제1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 GDP 비중의 30%정도였는데 2009년부터 10%이하로 내려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개혁개방 초기에 제1차 산업은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80년대 중기부터 하락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농업제도와 큰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 제2차 산업의 비중은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2년에 들어가면서 그 추세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2차 산업은 여전히 중국 전체산업에서 큰 비중이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로 보면 향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7〉 중국의 제3차 산업이 전체산업의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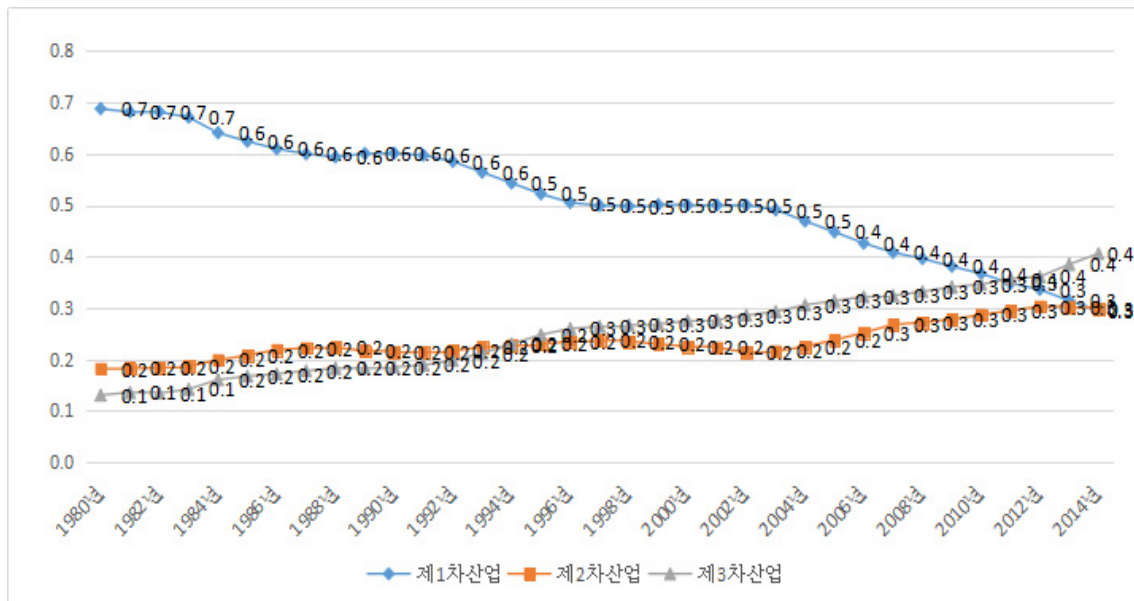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국

세 번째, 개혁개방 초기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가장 낮았고 1985년부터 제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의 비중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그 이후에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며 2013년에 처음으로 제2차 산업인 제조업을 초과하여 중국 전체산업의 비중의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반면에 제1차 산업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0%이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제2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의 변화는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추세를 진행되고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클 수 있다. 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은 제2차 산업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2차 산업의 성장세와 비중이 낮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2-8〉 중국 제3차 산업의 고용 비중 추이

(단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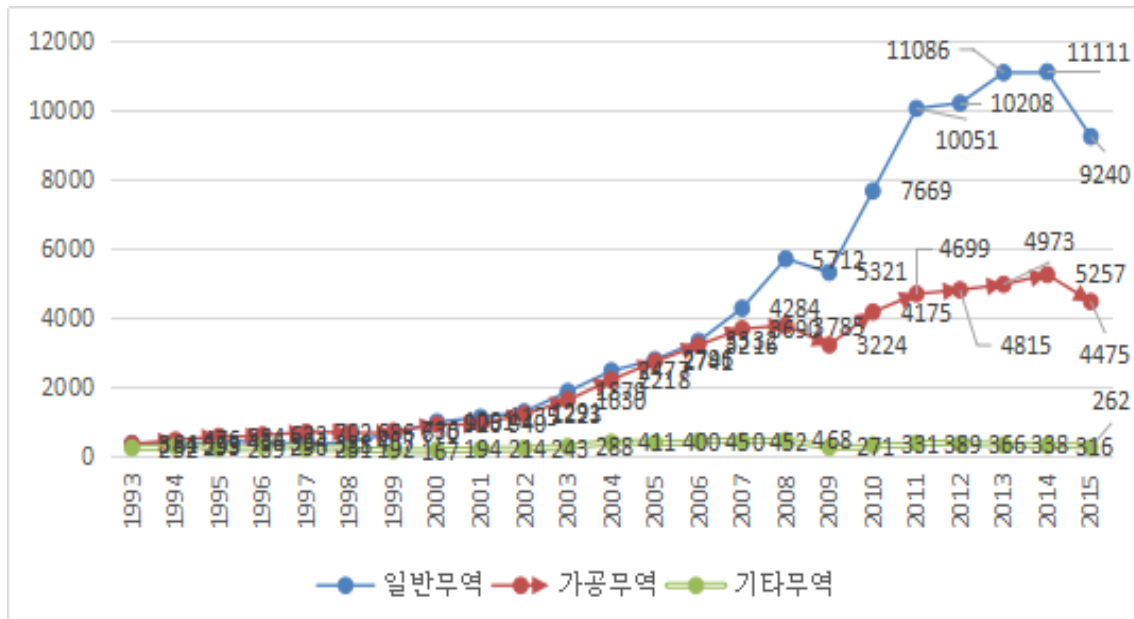
자료: 중국 통계국

〈그림 2-8〉을 보면, 제3차 산업이 전체산업에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1980년 가장 낮은 수준에서 1994년 제2차 산업 비중을 능가하여 2014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중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개혁개방이후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의 68.7%에서 2014년 29.5%까지 내려갔다. 반면에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의 고용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각각 1980년의 18.2%와 13.1%에서 2014년의 29.9%와 40.6%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2-9〉는 1993년 이후 중국의 수입액에 대한 무역형태별 규모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을 통해서 1993년 가공무역 380억 달러, 일반무역 363억 달러에서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이 비슷하게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가공무역은 증가세가 둔화되나 일반무역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 2015년에는 가공무역이 4,475억 달러, 일반무역이 9,239억 달러로 크게 차이를 보이며 가공무역을 앞서고 있다. 이와 같이 가공무역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원인은 중간재를 수입하여 단순가공과 조립해 수출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다단계 생산과정을 거치는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중국 전체 수입액의 무역방식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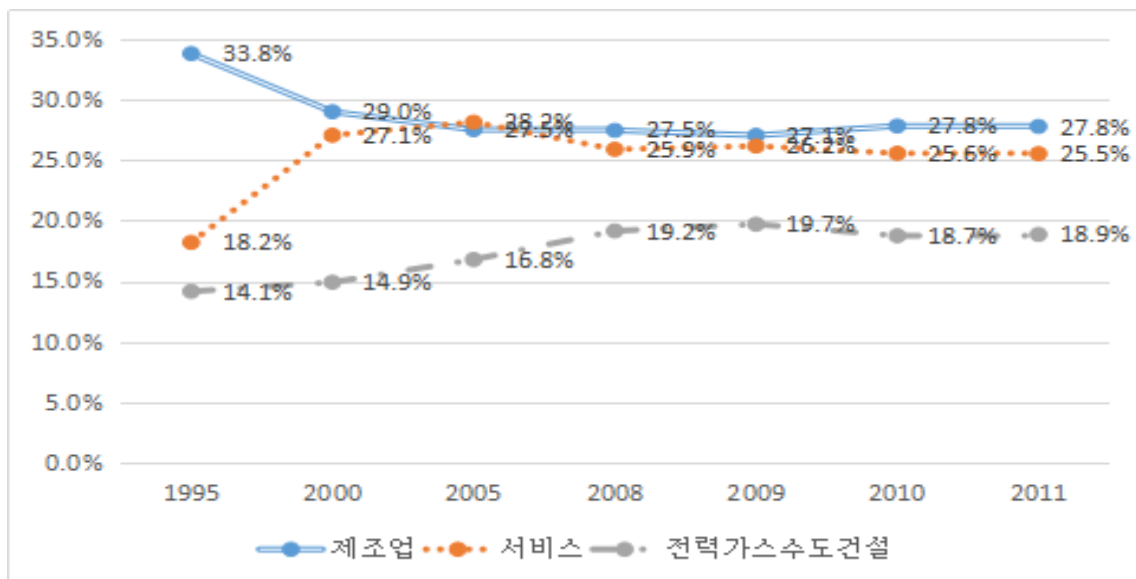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CEIC 자료 계산

중국의 생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내수 산업을 제조업, 서비스업, 전력·가스·수도·건설로 나누어 그 GDP 대비 비중 추이를 보면, 〈그림 2-10〉과 같이 1995년에는 제조업이 33.83%(비내구재 23.55%, 내구재 10.27%), 서비스업이 18.20%, 전력·가스·수도·건설이 14.14%로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비중이 컸으나, 그 이후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과 전력·가스·수도·건설의 비중은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제조업이 27.80%(비내구재 12.96%, 내구재 14.84%), 서비스업이 25.54%, 전력·가스·수도·건설이 18.86%를 점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내구재 수요 중심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맞물려 중화학제조업이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의 성장속도 저하로 서비스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 감소에는 비내구재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며 내구재는 동기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산업구조변화를 인식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어 있는 내구재 산업의 수요 증가가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가치사슬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내수증가율이 커도 타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0〉 중국 내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추이(2005-2011)



자료: 중국 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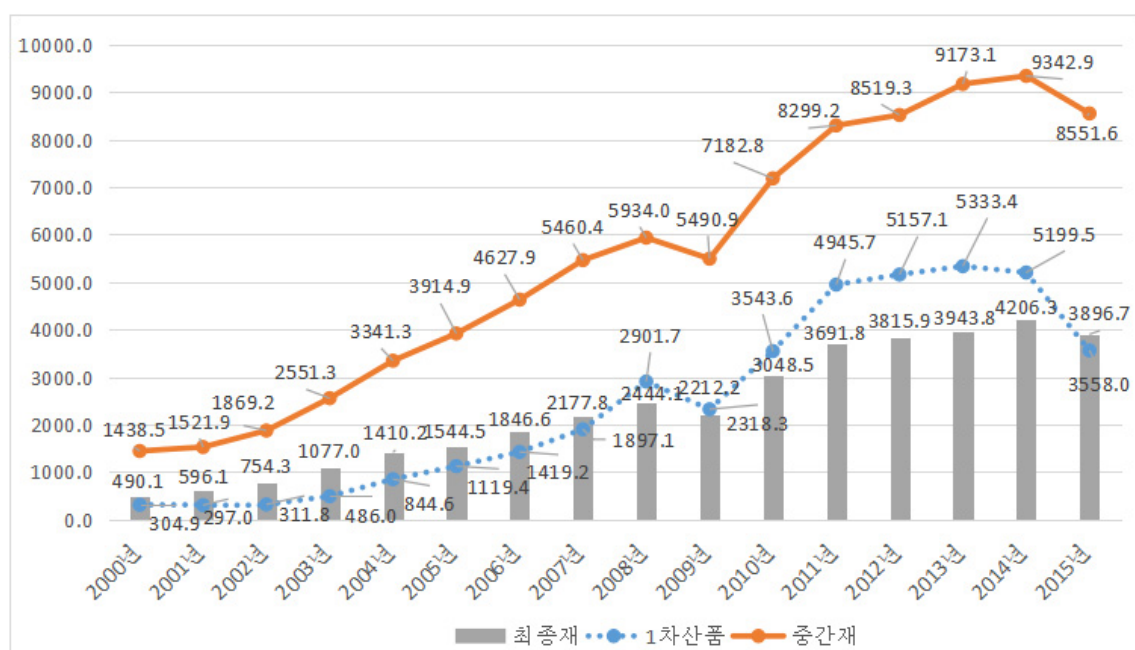
다음 2001년-2015년 기간 동안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규모 변화를 증가율로 살펴보면, 〈그림 2-1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가공무역 수출이 왕성하여 이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급증했으나 위기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최종재와 1차 상품 수요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수치로 보면 2001년 중간재 수입액은 2001년 1,439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8,551.55억 달러로 5.94배 증가하였고, 최종재는 같은 기간 490.1억 달러에서 3,896.69억 달러로 7.95배 증가하고, 1차 상품은 같은 기간 304억 달러에서 3,557.98억 달러로 11.7배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입구조도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 2-12〉는 2000-2015년 기간의 중국 전체 수입의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데 가공단계별 구조를 1차 상품(원자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로 나누었을 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제품으로 2000년 63.9%에서 2015년에는 50.9%로 비중이 감소하였고, 다음 1차 상품으로 같은 기간 13.5%에서 23.2%로 증가하였으며 부품·부분품은 같은 기간 21.8%에서 21.2%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자본재는 동기간 0.8%에서 4.8%로 크게 증가하였고, 소비재는 동 기간 4.2%에서 8.8%로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 용도로 수입하는 중간재로 볼 수 있는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의 구성비는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85.7%→72.1%), 중국의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재와 자본재를 합한

최종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5%→13.6%)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제조업품에 대한 세계 수입수요의 저하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친환경정책 그리고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에서 가공무역의 축소와 일반무역의 증가 변화와도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공단계별 구조 변화에 대한 특징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다.³⁾

〈그림 2-11〉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규모 변화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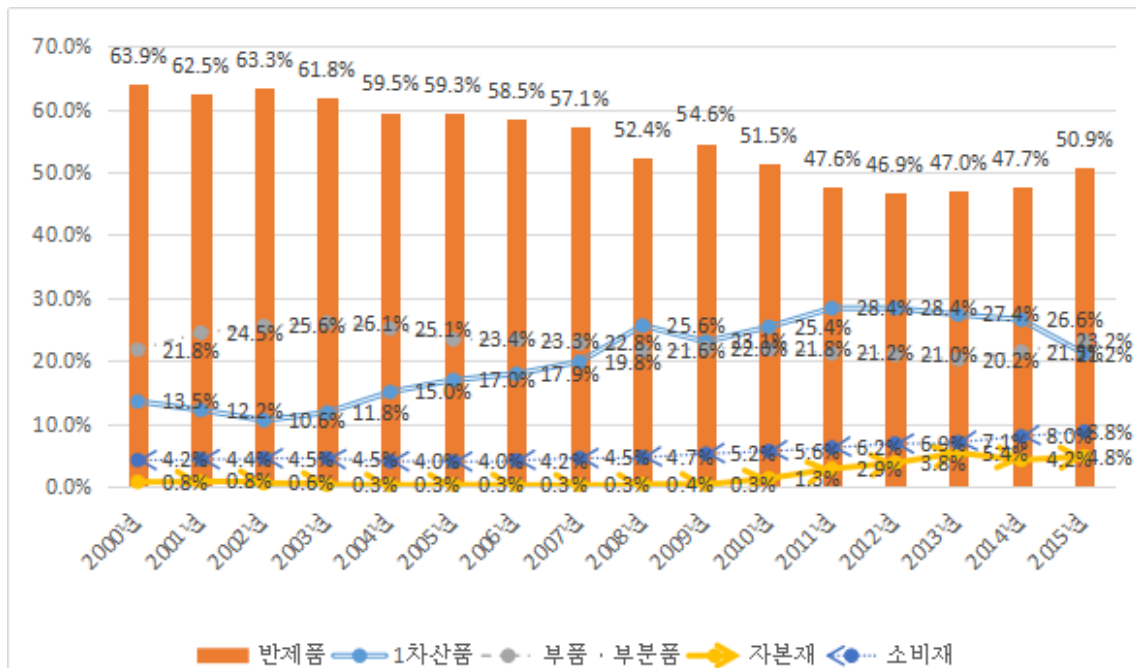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함.

다음은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가공단계별 비중 변화를 〈그림 2-13〉을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반제품과 부품·부품을 합한 중간재가 동기간 동안 87.4%에서 77.5%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를 합한 최종재 비중은 동기간 동안 12.2%에서 21.8%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흡하여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최종재에 대한 수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과 수입구조 변화에 한국의 산업이나 정부정책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는 다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본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얻어낸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12〉 중국 수입시장의 가공단계별 구조(2000-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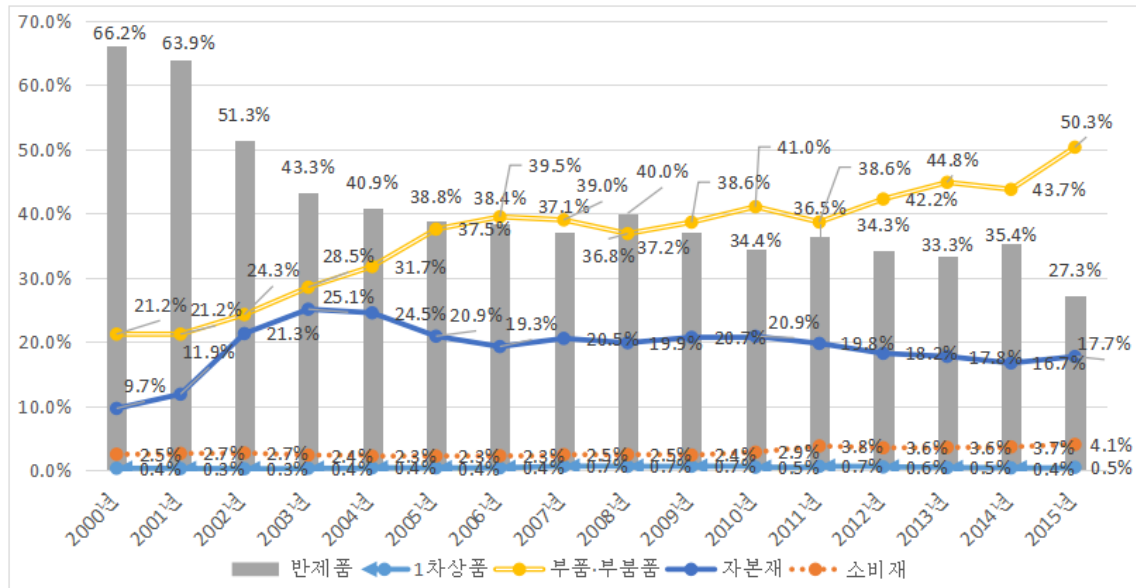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함.

다음, 1998-2015년 기간 동안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의 업종별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2-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에는 제조업이 94.6%, 농림수산업이 3.6%, 광업이 1.8%를 차지하였으나 제조업은 점차 비중이 감소하여 2015년에는 84.2%, 농림수산업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 5.1%, 광업은 2011년에 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는 6%를 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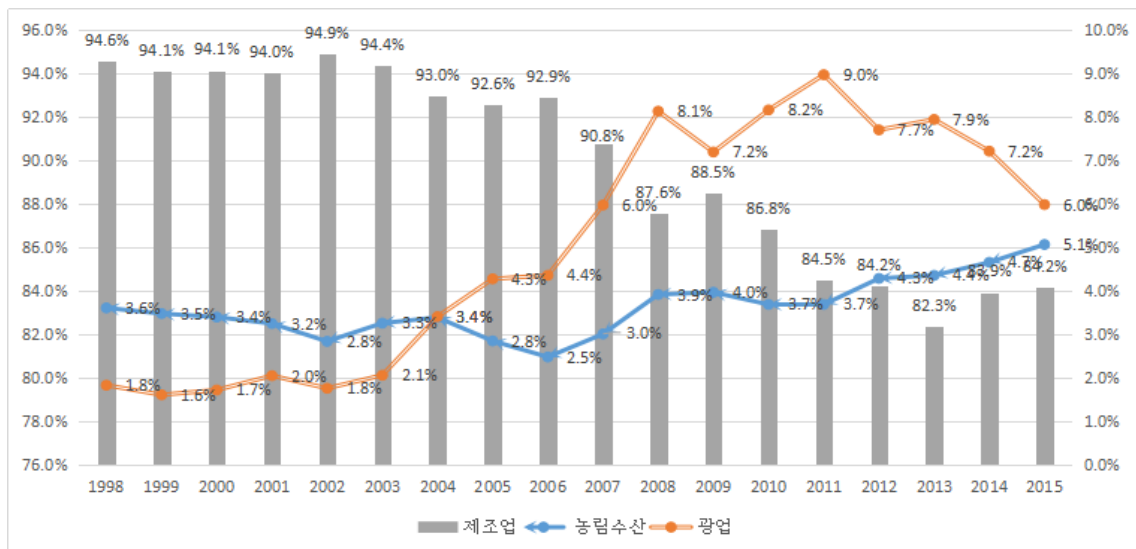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업종별 비중은 〈그림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제조업 99.5%에서 2012년에 98.5%로 감소했다가 2015년에는 99.6%를 점해 압도적이며 농림수산업은 1998년 0.4%에서 2015년 0.1%로 감소하였고, 광업은 1998년부터 0.1%의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은 1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은 1998년 1.2%에서 2015년에 0.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광업은 1998년 0.4%에서 2015년 0.2%로 약간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3〉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의 가공단계별 비중(2000-2015년)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함.

〈그림 2-14〉 중국 전체 수입시장의 업종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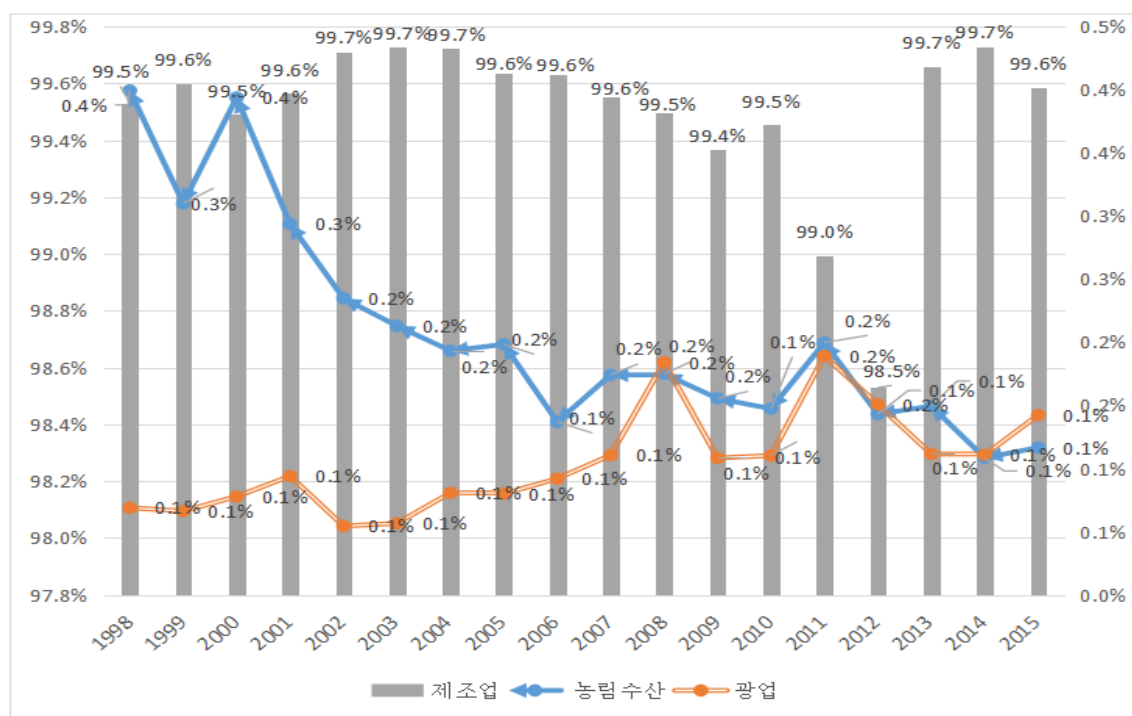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함.

〈그림 2-16〉은 1992-2015년 기간 동안 주요국의 대 중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의 추이를 나타내는데, 1992년 한국 3.25%, 미국 11.05%, 일본 16.98%, EU 13.40%에서 2015년에는 한국 10.38%, 미국 8.95%, 일본 8.51%, EU 12.45%로 수입 비중이 바뀌어, 미국, 일본, EU는 수입비중이 감소해온 반면, 한국은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중국수입 비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만큼 한국의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5〉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의 업종별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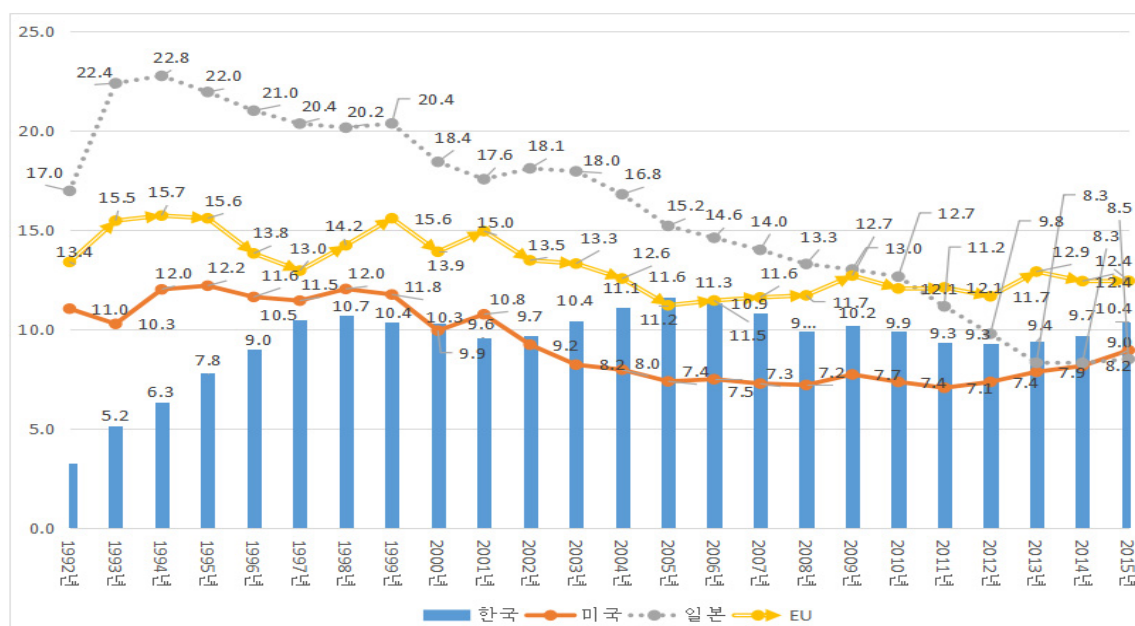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함.

다음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서비스 무역의 수입액은 〈그림 2-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봐도 1992년 10%(92억 달러)를 점 하던 것이 2015년에는 22%(4,663억 달러)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서비스무역 수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그 추이는 〈그림 2-18〉과 같다. 서비스업을 운송, 관광, 보험, 금융, 지적재산권사용료, 건설,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서비스, 개인문화오락서비스, 기타 9개 분야로 나누었을 때, 그 비중의 크기가 관광, 운송, 기타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험, 건설, 전자통신, 개인오락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관광업은 2000년 36.6%에서 2008년 23%로 내려갔다가 2015년에는 62.7%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송업은 2000년 29%에서 2008년 33.9%로

증가했다가 2015년에 16.2%를 점하고 있다. 기타서비스업은 2000년 19.4%에서 2008년 24.4%로 증가했다가 2015년에는 8.8%로 그 비중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이는 이제 중국인의 평균소득이 높아져서 해외여행 등 관광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쇼핑 등 택배서비스 증가 등 소비의 증가가 운송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6〉 주요국 대 중국 수출이 중국 수입에서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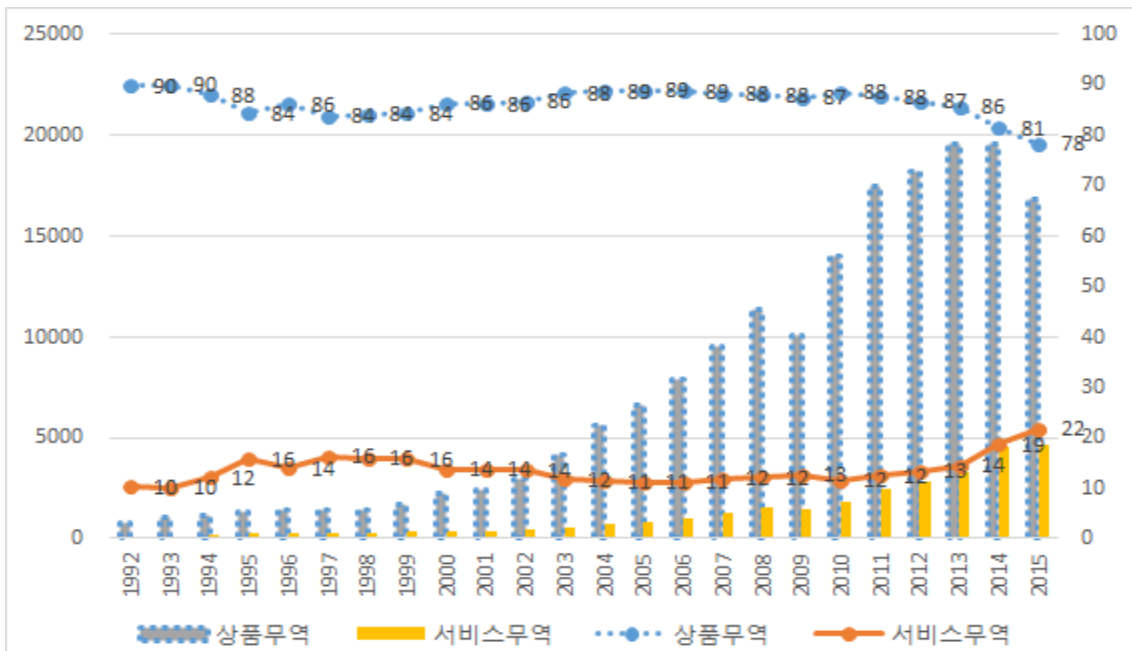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함.

한편 한국의 대중 서비스무역 수출 추이를 보면, 〈그림 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비중의 크기가 운송, 기타서비스, 관광, 건설 순으로, 운송업은 2000년 44.5%에서 2004년 52.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33.7%를 점하고 있고, 기타서비스는 동기간 동안 23.4%에서 2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관광업은 동기간 22.7%에서 17.4%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은 동기간 8.1%에서 13.9%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이를 볼 때 중국의 관광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직구를 촉진하여 운송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7〉 중국의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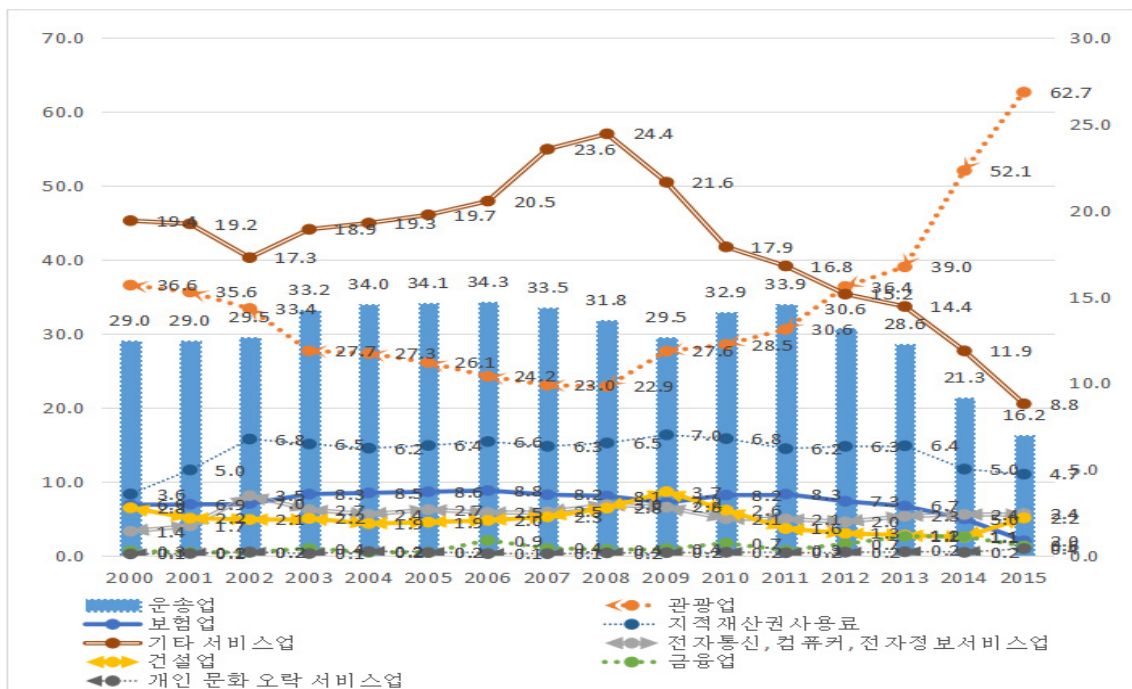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자료: WTO Statistics Database 정리 계산

〈그림 2-18〉 중국 서비스무역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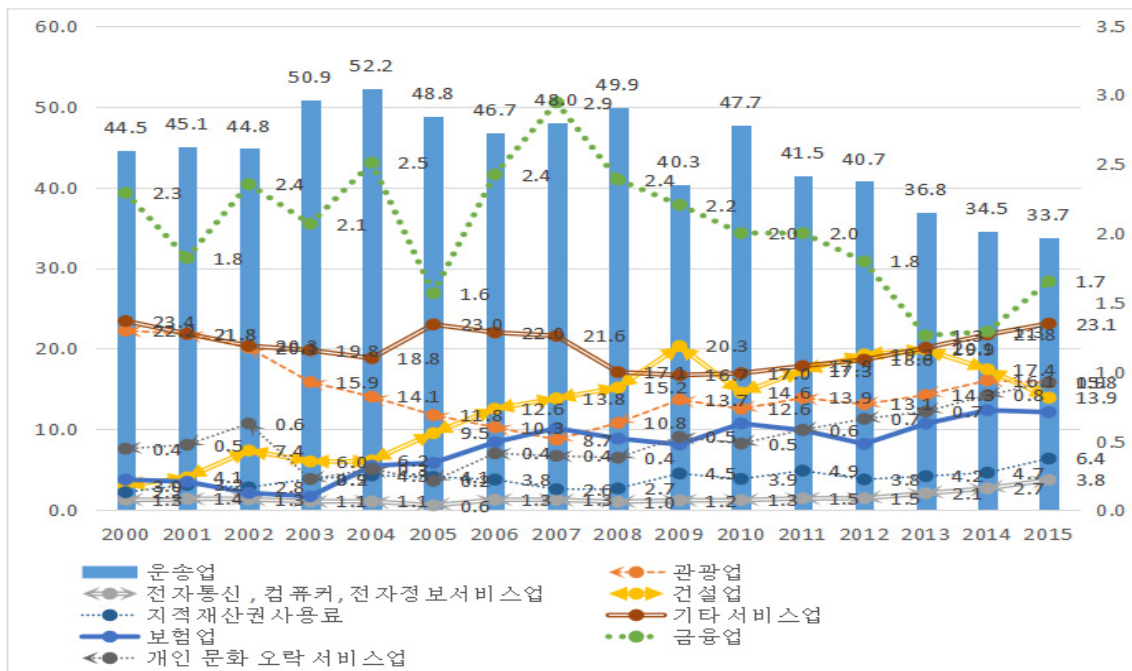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TO Statistics Database 정리 계산

〈그림 2-19〉 한국 서비스무역 수출 추이

(단위: %)



자료: WTO Statistics Database 정리 계산

2.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 변화 추이

201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13.5 계획))」를 발표했는데, 「13.5 계획」은 7대 주요 목표와 5대 발전이념을 설정하고, 그 중 ‘혁신’을 핵심전략으로 강조했다. 혁신적 창업 기회 확대 및 총요소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및 경제 간 융합을 심화하며, 혁신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중점 분야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는 등 자주혁신 역량을 증강함으로써 혁신형 국가 및 인재강국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 동안 과학기술 혁신 ‘대중창업·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과 인재 발전, 새로운 발전 동력 창출 등 측면에서 혁신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 시진핑(习近平) 정권의 출범 이후 경제성장에 있어 과학기술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발전 전략을 지속 시행해왔다. 그 내용은 R&D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국가 재정정책상 과학기술 혁신 지원 역할

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역량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2015년 기초연구 투입은 2012년 대비 34.4% 증가한 670.6위안, GDP대비 R&D 투입의 비중은 2012년 대비 0.17% 상승한 2.1%로,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R&D 투자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과학기술혁신에 유리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2014년 국가 재정의 과학기술 관련 지출은 2012년 대비 15.3%로 증가한 6,454억 5,000만 위안으로, 전체 재정지출에서 4.25%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대한 과학기술 성과를 창출하여, 2012년 이후 중국은 양자 홀 효과, 고온초전도 소재, 페르미 입자, 암흑물질 입자 관측 위성 등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2015년 중국의 특허 신청 및 취득 수량은 각각 2012년 대비 36.5%, 36.9% 증가한 약 2,800만 건, 171만 8,000건으로, 그 중 발명특허 신청 건수는 처음으로 100만 건을 초과하였다. 첨단 산업구조 최적화로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지역 혁신 전략을 추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성과를 창출했는데, 2015년 첨단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으며, 전체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 내 비중은 2012년 대비 33.9% 증가한 11.8%를 기록, 첨단 기술제조 기업의 신제품 개발 성과가 제품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를 다짐하고 있다. 징진지(京津冀) 지역 혁신 공동체 건설 및 창장(长江) 경제벨트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성(省) 및 도시 시범 건설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지역혁신 개혁을 실시했으며, 2015년 장쑤(江苏), 광둥(广东), 산둥(山东), 베이징(北京) 등 지역의 R&D 투자는 1,000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전국 평균 수준을 초과, 주요 도시 및 성을 중심으로 혁신 영향력이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13.5 계획』에서 발표한 발전관련 목표를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대비 R&D 투입 비중을 2015년 2.1%에서 2020년 2.5%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명 특허 보유량과 과학기술 발전기여도도 동기간동안 각기 연평균 5.7%, 4.7%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인터넷 보급률도 광대역 및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에서 동기간 각기 연평균 30%, 28% 증가하여 2020년에 각기 70%, 85% 보급률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불균형 확대에 의한 통상마찰과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공 무역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는 1999년부터 가공무역상품을 금지·제한·허용으로 나누고, 가공무역 금지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와서 2014년에 그 품목수가 1,871개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다소 완화되기도 하였다.

2015년 11월 10일에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지품목은 총 1,862개에 달한다.⁴⁾

〈표 2-1〉 『13.5 계획』 강요 혁신 발전 관련 주요지표

지 표		2015년	2020년	연평균 성장률 (누적)	속성
GDP대비 R&D 투입 비중(%)		2.1	2.5	[0.4]	예측성
인구 만 명당 발명 특허 보유량(건)		6.3	12	[5.7]	예측성
과학기술 발전 기여도(%)		55.3	60	[4.7]	예측성
인터넷 보급률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40	70	[30]	예측성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	57	85	[28]	

주: 1) []는 5년간의 누적수치

2) 속성의 '예측성'은 정부의 실현 가능한 예상수치를 의미함.

자료: “[13.5 계획] 기간 중국의 혁신발전 전략 방향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6.10.28.).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 및 산업 정책 변화에도 유의하여 적절히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4) <http://www.aiweibang.com/yuedu/70896467.html>에서 발췌함.

Ⅲ.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경로도

본 장에서는 중국의 내수시장 확장에 따른 최종수요의 성장 및 그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산업별 영향을 한국과 중국 간 가치사슬에 기반한 장기 시계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두 가지 측면, 첫째,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최종수요의 구조적 변화, 둘째, 생산 및 수입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크게 구분해서 한국경제의 산업별 영향을 검토한다. 특별히, 현재 진행되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및 이에 대응한 한국 산업의 변동을 통계 데이터에 기반해서 살펴본다. 경험적 계량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각 산업들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경제 전반과 산업별 경제적 영향을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해서 문헌들을 정리하여 검토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김성태·정규철(2015)이 산업연관분석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와 0.02% 저하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7%가량 저하됨을 보였다. 한진희·최용석(2007)의 분석에서는 중국의 독자적인 최종수요, 특히 투자를 위한 자본재 수요자 역할이 컸고 이것이 한국 제조업의 성장 이끌었다.

Lall(2000)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 수출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큰 기여를 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중국의 수출이나 실질환율보다 중국 국내수요의 영향이 커져 구조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투자와 소비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출이 소비재의 수출보다 중국의 국내수요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 성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정성훈(2015)은 한진희·최용석(2007)을 확장해 산업별 최종수요의 차이 및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분석을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2014년도 최종수요의 성장률은 내구재가 약 10%, 서비스가 6-9%, 전력·가스·수도·건설은 8%, 비구재는 5-7%를 달성했다. 산업별(대

분류) 내수 규모를 보면, 성장 속도가 내구재, 전력·가스·수도·건설, 서비스, 비내구재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이론에 따라 1995년에는 비내구재(농산물, 의류, 석유화학 등)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내구재(기계, 자동차 등)가 가장 높았다. 2015년 말 서비스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의 성장률보다 2%정도 높아졌다.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국은 2014년에 세계 GDP의 13%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1년도 한국 GDP 성장률의 3.7%중 약 22%가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에 의해 유발된 것이다. 정성훈(2015)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중국의 내수시장 구조는 내구재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 그 다음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내구재 산업 순으로 성장했다. 중국 내구재 산업의 빠른 성장이 한국 내구재 산업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정성훈(2016)은 중국의 최종수요 성장이 한국의 GDP와 총수출을 성장시키며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내구재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성장함에 따라 한국 GDP와 대외수출이 상당한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 맞물려 전기와 전자기기 등 중화학제조업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성장속도 둔화로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함 때문에 그동안 특수를 누렸던 중화학공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중국의 최종수요 실제성장이 한국 GDP와 수출의 성장에 양(+)의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최종재 수출 성장률은 확대됐지만 총수출 성장률과 중간재 수출 성장률이 감소함을 보였다.

Bussiere et al(2013)는 수입수요의 상이한 집약성 측면에서, 투자와 수출은 높은 수입 성분에 의존하나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은 낮은 수입 성분에 의존하므로 중국의 투자 감소가 소비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순효과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함께 중국의 투자와 수출의 수입성분 비중은 각기 28.8%와 27.4%인데 반해 민간소비, 정부소비는 각기 19.1%와 13.8% 임이 이를 입증한다.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한국과 중국보다 국내 중간재 공급이 높아서 수입성분이 낮다.

한국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경제의 둔화에 기인한다. 대중국 수출품의 배분구조를 보면, 최종재 16%가 내수로, 중간재 84%중 내수가 55%, 수출이 29%로 나뉘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 71%가 중국 자체 내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또한, 정규철(2014)은 한국 GDP에 미치는 중국 내수 중요도는 수출총액을 기준으로 25.7%, 부가가치기준 20.2%로써 EU는 각각 16.2%, 19%, 미국은 9.5%, 13.4%, 일본은 9.4%, 7.6% 보다 높았다. 중국 GDP의 1%

하락이 수출 경로를 통해 한국 GDP의 0.08%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중국 소비보다 투자에 연동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의 둔화에 따라 각각 0.05%, 0.12%씩 하락된다고 분석했다.

정지현·김부용(2015)은 서비스업 발전과 가공무역 억제, 수입 대체능력과 생산성 향상, 산업고도화 추진 등에 따라 가공무역용 수입은 감소, 중국내 소비용 일반무역 수입은 급증한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둔화는, 가공무역, 중간재, 전자·화학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부족한 수입수요 증가 분야는 대만, 일본 등과의 경쟁 심화에 기인한 것이다.

중국의 가공무역 통제정책으로 선진국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가공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감소, 그중 일반무역 수입시장에서 반완성재 비중이 현저히 감소했다(2009년 28%, 2014년 22.1%). 이는 반완성재의 화학, 기초소재품과 같은 산업용 원자재 비율이 현저히 감소함에 기인한다(2009년 24.5%, 2014년 19.8%). 산업투자 증가 유도를 위한 산업의 수입대체 효과로 시설과 산업고도화를 위한 생산 증가에도 기인한다.

정지현(2016)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수요 수입시장은 1차 상품 구조로 변화되지만 한국의 일반무역 수출에서 중간재가 78.6%이고 중간재의 반완성품 비중은 2009년 52.7%에서 2014년 46.6%로 약간 감소한 반면 자본재의 부품 성분은 2009년 27.1%에서 2014년 32%로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반완성재의 화학, 기초소재품은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부품의 수출은 급증한다. 이는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산업의 핵심부품 수요증가 및 중화학 소재산업의 시험과 생산에 기인한 수입대체 효과와 관련이 깊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요약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2) 분석 경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으로 중국이 내수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산업별 영향을 경로별로 검토한다.

기대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최신 분석자료와 함께 Flow Chart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림 3-1>은 중국 대외수출과 성장률의 둔화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한다. 둘째, <그림 3-2>는 중국 경제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주요 산업별 영향을 검토 및 정리한다.

〈표 3-1〉 선행연구 요약

연구문헌	원인(중국)	결과(한국)	특 징
김성태·정규철 (2015)	경제성장률 1% 감소	경제성장률 0.37% 감소	산업연관분석 방법론
한진희·최용석 (2007)	자본재 수요증가	제조업 성장	중국의 투자용 자본재 수요증가
Lall (2000)	내수 증가	수출 증가	원자재·자본재의 수출이 민감 반응
정성훈 (2015) (2016)	내구재 중심 내수 성장	제조업의 성장 과 수출 증가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과 연계 내구재 산업 성장
Bussiere et al. (2013)	투자 감소와 소비 증가	수출 감소	수입수요 성분이 투자가 높고 소비는 낮음
정규철 (2014)	투자 감소	GDP의 0.12% 하락	대중수출이 중국 소비보다 투자에 큰 연동
정지현 (2016)	반완성재 수입비중 축소	중간재 수출 감소(*컴퓨터, 통신장비 부품 등은 증가)	가공무역 통제 및 산업의 수입 대체효과와 고도화
정지현·김부용 (2015)	중간재 수입 수요 감소	수출 감소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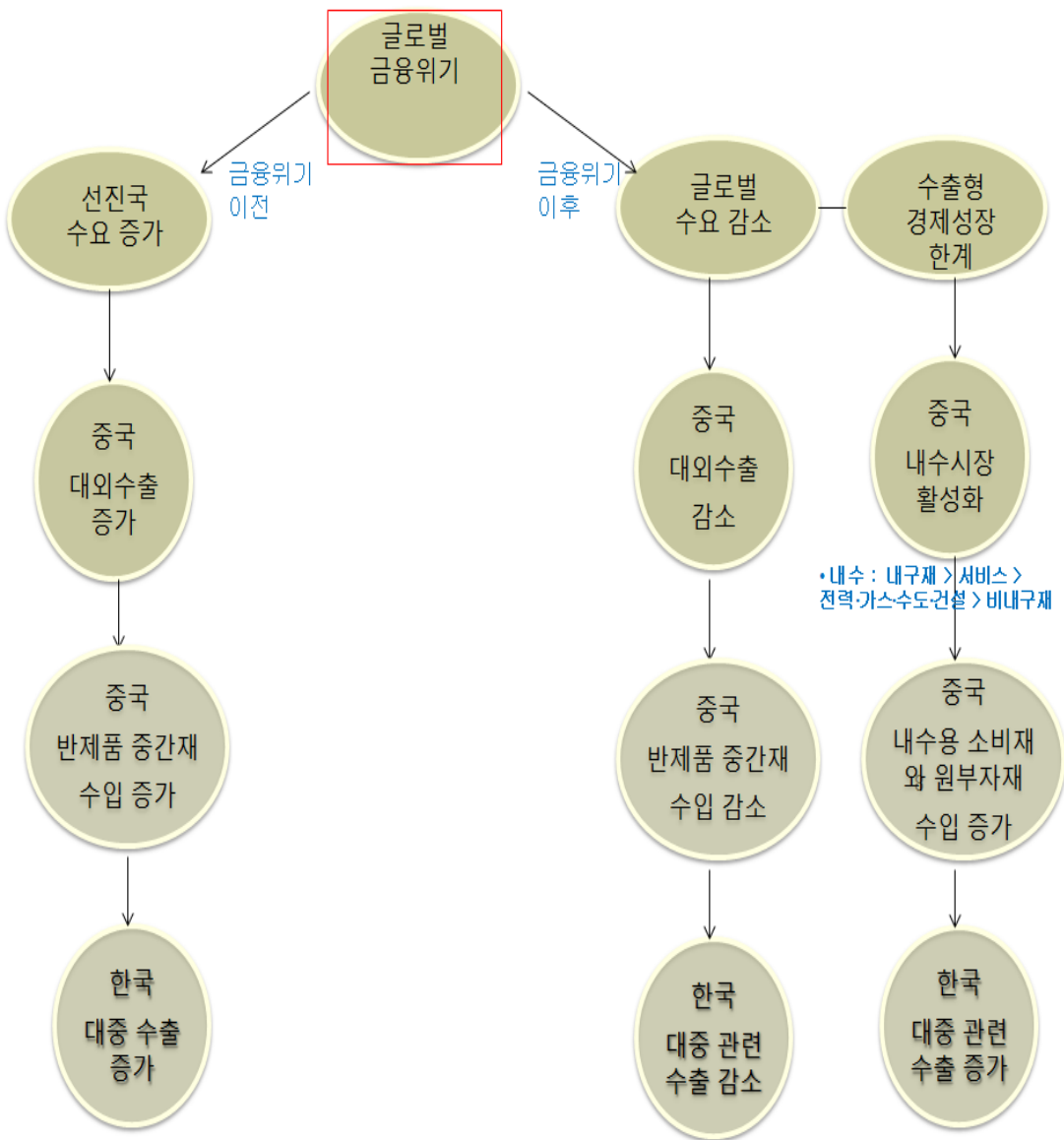
〈그림 3-1〉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선진국 수요의 증가로 인해 중국의 생산 및 대외수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중국의 중간재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는 글로벌 수요의 감소로 인해 중국의 생산 및 대외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의 반제품 중간재 등의 대중국 수출도 위축되었음 나타낸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 의존형 성장의 문제로 인해 내수 활성화를 지향함에 따라 내수 소비시장은 확대되고 내수용 소비재와 원부자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내수 관련 소비재와 원부자재의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그림 3-2〉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와

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내수 소비재와 내수용 원부자재의 수출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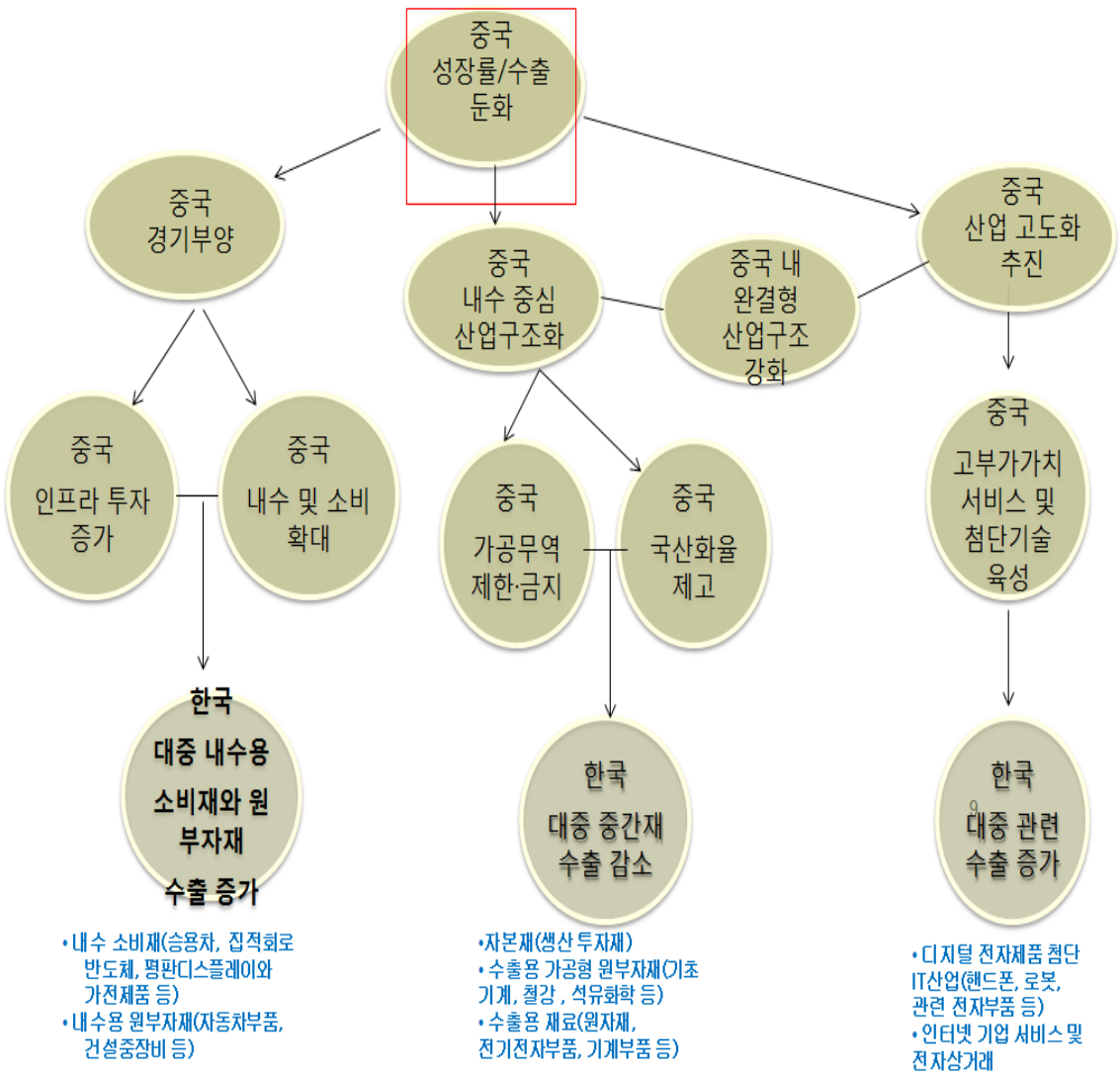
<그림 3-1> 중국 수출과 성장률의 둔화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



그러나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금지 정책 강화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중간재의 수출은 감소한다. 따라서 한국의 자본재와 중간재에 편중된 대중국 수출이나 수출용 가공형 원·부자재의 수출이 감소한다. 또한, 중국 내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로 현지 생산체제가 확대되어 현지에서 원부자재 조달이 더욱 용이해지고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국산화율 제고 요구

에 따른 현지 조달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감소한다.

<그림 3-2> 중국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변화가 한국의 대중 수출에 미친 영향



이에 반해, 중국이 산업고도화 추진에 따른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첨단기술을 육성함에 따라 디지털 전자제품과 첨단 IT산업을 비롯한 인터넷 기업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의 대중 수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전망해 볼 수 있다.

2. 현황분석

중국경제의 내수 확대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최근 현황에 대해 관련 통계DB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중국 내수(최종 수요=소비+투자)의 성장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함께 한국경제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중국의 내수 규모가 1995년에 6조 위안에서 2014년에는 62.3조 위안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내수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2000년대 생산과 산업구조 변화는 중국 수입 구조의 변화를 야기했다. 또한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포함한 중간재의 수입비중은 70%를 초과한 수준이다. 원자재의 수입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여 30%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중간재의 수입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여 5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반제품이 감소하였다.

최종재의 수입비중은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소비재의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가공무역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반무역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감소한 이유를 가공무역 수입비중의 축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입형태 측면에서 가공무역은 2000년 약 43.7%에서 2015년 32.1% 정도로 감소한 반면에 일반무역은 2000년 47.2%에서 2015년에 66.2% 정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과정이 단순한 가공과 조립에서 원자재 구매와 더 많은 생산 공정을 거치는 산업의 고도화와 관련이 깊다.

그런데 <표 3-3>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2000년대에 중간재가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반제품은 감소하고 부품·부분품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원자재의 경우 한국은 부존자원 부족으로 대중 수출비중이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비중이 증가하는 최종 소비재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자본재와 달리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다.

<표 3-4>는 중국의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 비중 및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내수 수입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시장점유율 지표로 보건데,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을 알 수 있다.

〈표 3-2〉 중국 수입의 용도 및 형태별 비중의 추이

(단위: %)

연 도	중 간 재		원자재	최 종 재		일반 무역	가공 무역	기타 무역
	반제품	부품·부 분품		자본재	소비재			
2000년	39.68	24.23	13.55	17.55	4.23	47.20	43.68	9.12
2001년	37.38	25.11	12.20	20.11	4.36	49.60	41.08	9.32
2002년	35.96	27.36	10.56	21.04	4.52	46.83	44.37	8.81
2003년	33.40	28.41	11.77	21.58	4.51	49.48	42.94	7.58
2004년	30.94	28.59	15.05	21.09	4.03	48.50	43.44	8.06
2005년	29.78	29.54	16.96	19.40	4.00	47.10	46.17	6.74
2006년	27.94	30.54	17.93	19.16	4.17	47.61	45.95	6.44
2007년	27.72	29.39	19.84	18.23	4.55	50.84	43.79	5.37
2008년	26.35	26.05	25.62	16.91	4.67	57.32	37.98	4.70
2009년	27.41	27.20	23.05	16.77	5.23	60.36	36.57	3.08
2010년	25.58	25.87	25.38	16.19	5.64	62.99	34.29	2.72
2011년	24.65	22.96	28.37	14.97	6.20	66.39	31.04	2.57
2012년	23.60	23.26	28.36	14.13	6.85	66.33	31.29	2.38
2013년	22.67	24.37	27.35	13.17	7.06	67.61	30.33	2.06
2014년	23.64	24.07	26.56	13.49	8.00	66.66	31.54	1.80
2015년	23.07	27.78	21.16	14.40	8.77	66.19	32.06	1.76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표 3-3〉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용도별 비중의 추이

(단위: %)

연 도	중 간 재		원자재	최 종 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
2000년	66.16	21.22	0.37	9.67	2.55
2001년	63.86	21.21	0.32	11.88	2.68
2002년	51.33	24.26	0.29	21.30	2.74
2003년	43.29	28.50	0.37	25.10	2.41
2004년	40.88	31.73	0.44	24.53	2.27
2005년	38.77	37.53	0.43	20.90	2.28
2006년	38.38	39.46	0.44	19.28	2.30
2007년	37.14	38.97	0.69	20.55	2.49
2008년	39.98	36.84	0.67	19.88	2.49
2009년	37.20	38.62	0.68	20.72	2.42
2010년	34.41	41.03	0.53	20.88	2.87
2011년	36.47	38.64	0.67	19.77	3.84
2012년	34.25	42.22	0.57	18.23	3.55
2013년	33.26	44.81	0.47	17.75	3.61
2014년	35.36	43.72	0.42	16.73	3.69
2015년	27.25	50.27	0.52	17.73	4.07

자료: UN Comtrade Database.

정지현·김부용(2015)이 정리한 〈표 3-5〉에서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가공단계별 한국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4년도 기준 한국은 중간재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낸 반면 1차 상품과 최종 소비재의 점유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2014년도 시장점유율이 높은 중간재에서 자본재 등의 부품·부분품의 점유율은 13.3%로 증가했지만 가공된 원료 및 윤활유 등의 반제품은 12.1%로 감소했다. 최종재의 수입시장에서 자본재의 시장점유율은 8%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소비재의 점유비중은 낮고 그 점유율도 승용차나 반내구재 때문에 하락하고 있으나 내구재는 점유비중도 높고 그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

〈표 3-4〉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액 비중

(단위: 억 달러)

연 도	수입액 및 비중		
	전 세 계	한 국	
		수 입 액	비 중
2000년	2250.94	232.07	10.31%
2001년	2435.53	233.77	9.60%
2002년	2951.70	285.68	9.68%
2003년	4127.60	431.28	10.45%
2004년	5612.29	622.34	11.09%
2005년	6599.53	768.20	11.64%
2006년	7914.61	897.24	11.34%
2007년	9561.15	1037.52	10.85%
2008년	11325.62	1121.38	9.90%
2009년	10055.55	1025.52	10.20%
2010년	13960.02	1383.39	9.91%
2011년	17433.95	1627.17	9.33%
2012년	18181.99	1687.28	9.28%
2013년	19499.92	1830.73	9.39%
2014년	19580.21	1901.05	9.71%
2015년	16816.71	1745.64	10.38%

자료: UN Comtrade Database.

또한, 중국경제의 내수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가 국내 산업별 성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정성훈(2016)의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중국 최종수요의 실제증가가 한국의 성장률에 미친 영향을 2014년도 기준으로 〈표 3-6〉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최종수요 성장이 한국의 GDP와 총수출을 성장시키며 중간재와 최종재의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내수 성장이 2014년까지 내구재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의 내구재 산업이 GDP와 대외수출에서 상당한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특히, 컴퓨터·전자기기, 전기기기 등을 비롯한 중화학 제조업의 성장률이 높았다. 반면 석유·화학을 제외한 비내구재 산업의 성장률은 낮았다. 또한 부동산,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도소매·숙박·음식, 운수·통신,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총수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5〉 중국에서 가공단계별 한국제품의 내수용 수입 점유율

(단위: %)

가공 단계		2006년	2014년	
전 체		8.0	5.7	
1차산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7	0.4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미가공 원료 및 윤활유		
		합 계	0.3	0.2
중 간 재	반 제 품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0.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5.6	12.9
		가공된 원료및 윤활유	18.6	9.4
		소 계	15.4	12.1
	부품·부분품	자본재 부품·부분품	11.3	13.9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13.6	11.3
		소 계	11.9	13.3
최 종 재	자 본 재	자 본 재	8.3	8.0
		산업용 운송장비	1.4	1.5
		소 계	7.8	7.7
	소 비 재	미가공 가정용 식음류품	0.1	0.3
		가공된 가정용 식음류품	2.3	2.8
		승 용 차	8.2	3.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1	0.1
		내 구 재	7.3	10.1
		반내구재	6.5	4.2
		비내구재	3.8	4.5
		소 계	5.8	3.4
		미 분 류		7.2

자료: 정지현·김부용(2015)의 분석결과를 직접 인용함.

이와 같이, 중국의 내수시장은 그동안 내구재 수요 중심으로 성장,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에 맞물려 전기와 전자기기 등의 중화학제조업 국내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성장속도의 둔화로 서비스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특수를 누렸던 중화학공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서비스업이 성장하더라도,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작고 주로 기존 수입 산업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제조업 성장둔화에 따른 수입 감소를 만회하기가 어렵다고 한은(2016년)은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 변화를 인식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하고 중국 내수시장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표 3-6〉 중국 최종수요의 실제증가가 한국의 성장에 미친 영향(2014년)

(단위: %)

대분류	세부분류	총생산	총수출	중간재 수출/ 최종재 수출
전 산업		0.61	1.81	1.84 / 1.76
비내구재	농림어광업	0.34	0.59	
	식료품	0.35	0.94	
	섬유	0.41	0.87	
	목재·종이	0.50	0.69	
	석유·화학	1.20	1.86	
내구재	기계·금속	0.84	1.37	
	컴퓨터·전자기기	2.46	3.52	
	전기기기	1.26	2.17	
	자동차	0.80	1.19	
	기타 제조업	0.21	0.17	
전력·가스·수도·건설		0.17	0.40	
서비스	도소매·숙박·음식	0.83	2.08	
	운수·통신	0.80	1.55	
	금융	0.42	1.37	
	부동산	0.19	0.35	
	사업 서비스	0.69	0.37	
	기타 서비스	0.07	1.21	

자료: 정성훈(2016)의 분석결과를 직접 인용해 정리함.

3. 구조모형 및 분석결과

1) 모형과 분석방법

실증계량분석에서는 Bems et al(2011)의 구조모형에 기초한 장기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여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금융위기 전후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Bems et al.(2011)의 모형은 글로벌 I/O 기반 분석 방법론을 따르는 모형으로 기본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세계에서 특정 산업이나 상품에 대한 시장청산조건은 아래와 같다.

$$q_i(s) = \sum_j \sum_t q_{ij}^m(s, t) + \sum_j q_{ij}^f(s) \quad (3-1)$$

식(3-1)의 $q_i(s)$ 는 국가 i 의 산업이나 상품 s 의 총 산출량을 의미한다. 식의 우변은 i 국가의 s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나타내는데, 중간재 수요와 최종재 수요의 합으로 나타난다. $\sum_j \sum_t q_{ij}^m(s, t)$ 는 i 국가의 s 상품에 대한 j 국가의 t 산업의 중간수요를 지칭하고 $\sum_j q_{ij}^f(s)$ 는 i 국가의 s 상품에 대한 j 국가의 최종수요를 나타낸다.

이에 기초한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특정 산업이나 상품에 대한 간단한 부분 관계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q_i(s) = \sum_t q_{ij}^m(s, t) + q_{ij}^f(s) \quad (3-2)$$

여기서 $q_i(s)$ 는 i 국가(한국)의 s 산업이나 상품의 총 산출량을 의미한다. 식의 우변은 한국의 s 상품에 대한 j 국가(중국)의 수요를 나타내는데, 중간재와 최종재의 합 또는 중간재나 최종재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sum_t q_{ij}^m(s, t)$ 는 한국 s 상품에 대한 중국 t 산업의 중간수요를 지칭하고, $q_{ij}^f(s)$ 는 한국 s 상품에 대한 중국의 최종수요를 나타낸다.

상기 식을 증가율(성장률)로 변환해서 나타내면, 한국의 s 산업이나 상품의 총 산출량 증가율은 그 상품에 대한 중국의 중간수요 증가율과 최종수요 증가율의 선형 관계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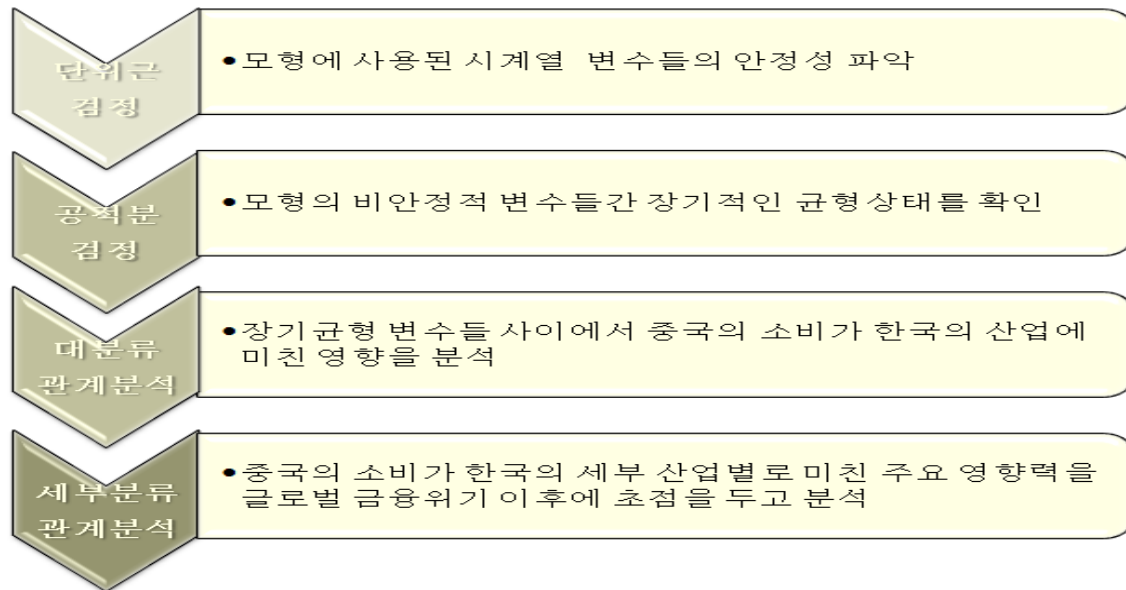
따라서 식 (3-2)는 한국경제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중국경제의 구조 변화를 생산과 최종수요의 구조 변화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산구조란 어떤 중간재를 사용하여 생산을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를 나타내며, 수요구조란 각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정성훈(2016), 김성태·정규철(2015) 등은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사용한 반면 본고는 산업연관 구조모형을 양국 간의 관계식으로 단순화시킨 모형에 기초한 장기 균형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⁵⁾.

실증분석에서는 Bems et al.(2011)의 구조모형에 기초한 이론적 기반위해 기초 통계DB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시계열분석의 추정방식 및 추정목적에 따라 분석하고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실증방법과 목적을 요약하면 <그림 3-3>과 같다.

5) 중국에 대한 중간재수요 자료를 시간제약으로 도출하기가 어려워 중국의 최종소비와 한국의 생산, 부가가치, 각 산업에 대한 공적분 관계를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로 추정 결과가 편의성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3-3〉 실증분석의 방법 및 목적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대분류 자료의 특성 및 출처는 아래의 <표 3-7>과 <표 3-8>과 같다. 대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분류한 자료는 대분류에 속하므로 세부분류 변수의 내용과 출처 및 기본분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분석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 전후에 초점을 둔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한국과 중국의 관련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도별 자료를 사용한다.

〈표 3-7〉 자료의 설명

자료명	내용(1995년-2015년도)	출처
한국 총생산	한국의 GDP(시장가격)	한국은행
한국 총부가가치	한국의 실질GDP(기초가격)	한국은행
한국 제조업	한국의 제조업 GDP	한국은행
한국 서비스업	한국의 서비스 GDP	한국은행
중국 소비	중국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WIOD
중국 정부 소비	중국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	WIOD
중국 서비스업	중국의 서비스 GDP	UN Comtrade DB

자료: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표 3-8〉 자료의 기초통계량

자 료 명	표본 평균			표본 표준편차		
	표본전체	위기이전 (1995-2007)	위기이후 (2008-2015)	표본 전체	위기 이전	위기 이후
한국 총생산	1,039,274	866,588	1,319,888	58,613	47,281	36,972
한국 총부가가치	935,448	776,740	1,193,347	53,595	43,747	33,218
한국 제조업	263,775	198,685	369,545	21,697	16,176	14,835
한국 서비스업	567,009	479,305	709,528	29,885	24,486	18,463
중국 소비	915,339	610,496	1,906,078	152,730	67,037	206,038
중국 정부 소비	344,896	222,365	743,120	62,217	29,239	86,606

주: 단위는 한국의 경우는 10억 원이고 중국은 백만 달러임.

2) 실증분석 결과

이제 실증분석에 필요한 단계별 기본분석을 수행한 후에 중국 최종소비가 한국경제에 미친 산업별 영향을 정리한다. 시계열분석 단계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3-3〉과 같다.

먼저, 실증분석에 사용할 변수들의 시계열적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일반적인 ADF(Augmented Dickey-Fuller)의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가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인 단위근을 기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비안정적으로 밝혀진 변수들은 거의 모두 5% 또는 10% 유의수준에서 1차 차분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준변수들 간에 장기적 균형관계가 성립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3-9〉 ADF 단위근 검정

변 수 명	수준변수	1차 차분변수
한국 총생산	-1.39	-5.28**
한국 총부가가치	-1.43	-5.21**
한국 제조업	-1.23	-4.78**
한국 서비스업	-1.95	-4.90**
중국 소비	1.51	-2.49
중국 정부 소비	1.05	-2.88*

주: 1) 각 변수는 상수항을 포함시켜 검정함.

2) 각 수치는 t-통계량의 값을 나타냄.

3) **와 *는 각각 5%와 10%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안정적임을 의미하며, 임계치는 ** 5% 유의수준에서 -3.02, * 10% 유의수준에서 -2.65 임.

분석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 사이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Engle-Granger(1987)의 공적분 검정을 실행하였다. 종속변수와 설명변수 간의 장기균형 관계에 대한 시간추세를 포함시킨 공적분 검정을 실행한 결과, <표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인 가계 소비와 가계·정부 소비의 경우 거의 모두 약 10% 유의수준에서 잔차가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공적분 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

<표 3-10> 공적분 검정

종속변수명	설 명 변 수 명	통 계 량
한국 총생산	중국 소비(가계와 가계·정부)	-3.97*, -3.92*
한국 총부가가치	중국 소비(가계와 가계·정부)	-3.92*, -3.88*
한국 제조업	중국 소비(가계와 가계·정부)	-3.83*, -3.78
한국 서비스업	중국 소비(가계와 가계·정부)	-3.63, -3.54

주: 1) 공적분 검정은 상수항과 추세항을 포함시켜 검정함.

2) *는 10% 정도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통계량을 의미하며, 임계치는 -3.83 임.

3) 각 통계량은 각각 중국 가계의 소비 및 가계와 정부의 소비를 나타냄.

따라서 수준변수들 간에 장기적 균형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자연로그를 취한 수준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표본 전체기간 및 금융위기 전후를 구분하여 구조변화 여부를 검정하고 모형의 추정결과를 평가하였다.

중국 최종소비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표본 전체기간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5-2007년)과 이후(2008-2015년)를 분석한 결과, 모형은 타당성을 가지며 추정값들이 p값에 의해 모두 유의적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중국 최종소비와 한국 산업 간에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참고로 덧붙이면 단순선형모형의 타당성이나 선형관계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F검정이나 결정계수(R^2)를 사용할 수 있지만 F검정은 설명변수 계수값에 대한 t검정과 동일하다. 즉, 계수 추정 값에 대한 t검정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낼뿐더러 하나의 독립변수의 t검정은 F검정처럼 회귀모형이 타당한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단순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F검정이나 t검정 또는 p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

우선, 대표본의 경우, 전체 표본기간 동안 중국의 최종수요 성장, 엄밀히 말하면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 성장이 한국의 총생산 및 산업의 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의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총생산, 총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0.37%, 0.37%, 0.55%, 0.34%씩 성장한다. 금융위기 이후는 이전에 비해 중국 최종소비의 영향력이 급감했다. 한국의 총생산의 경우 0.51%에서 0.24%로, 총부가가치는 0.52%에서 0.24%로, 제조업은 0.76%에서 0.44%로, 서비스업은 0.48%에서 0.19%로 크게 감소했다.

<표 3-11> 중국 최종소비(가계)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단위: %)

산 업	전체기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총생산	0.37 (0.00)	0.51 (0.00)	0.24 (0.02)
한국 총부가가치	0.37 (0.00)	0.52 (0.00)	0.24 (0.01)
한국 제조업	0.55 (0.00)	0.76 (0.00)	0.44 (0.03)
한국 서비스업	0.34 (0.00)	0.48 (0.00)	0.19 (0.00)

주: ()안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의미함.

중국의 가계와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의 성장도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총생산과 총부가가치 및 산업의 성장에 양(+)의 영향을 준다. 중국의 가계와 정부의 최종소비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의 최종소비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3-12> 중국 최종소비(가계와 정부)가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단위: %)

산업	전체기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총생산	0.36 (0.00)	0.48 (0.00)	0.23 (0.01)
한국 총부가가치	0.36 (0.00)	0.49 (0.00)	0.23 (0.01)
한국 제조업	0.54 (0.00)	0.72 (0.00)	0.43 (0.03)
한국 서비스업	0.33 (0.00)	0.46 (0.00)	0.18 (0.00)

주: ()안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의미함.

중국 가계의 최종소비가 산업별로 한국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1995-20007년)과 이후(2000-2015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적으로 판명되었다. <표 3-13>에서 표본기간 동안 중국 최종소비의 성장이 한국의 산업별 성장에 대부분 양(+)의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 최종소비와 한국 광업의 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첫째, 제조업 비내구재의 경우, 전체기간 동안 중국의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화학(0.39%), 석탄·석유(0.38%), 섬유(0.14%), 목재·종이(0.12%), 음식료품(0.1%)이 증가한다. 특히, 석탄·석유 및 화학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위기 이후 음식료품은 0.18%에서 0.02%로 영향은 급감하지만 섬유는 0.13%에서 0.22%로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둘째, 제조업 내구재의 경우, 전체기간 동안 중국의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에 한국의 전기·전자기기(1.15%), 정밀기기(0.81%), 운송장비(0.6%), 기계·장비(0.54%), 금속(0.35%), 기타 제조업(0.34%), 비금속·광물(0.27%), 1차금속(0.17%)이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전기·전자기기는 1.67%에서 0.81%로, 정밀기기는 1.21%에서 0.74%로, 운송장비는 0.73%에서 0.38%로 영향이 급감했다. 그러나 1차금속은 0.3%에서 0.4%로 영향은 증가했다. 또한, 전력·가스·수도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 영향이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기간 동안 중국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에 한국의 정보통신업(0.68%), 출판·영화(0.52%), 사업서비스(0.43%), 기술서비스(0.39%), 금융·보험(0.38%), 운수·보관(0.37%), 문화 및 기타서비스(0.35%), 보건·사회복지(0.31%), 부동산·임대(0.28%), 교육서비스(0.26%), 도소매(0.25%), 숙박·음식(0.22%)은 증가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도소매, 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에 미친 영향이 대부분 크게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서비스업의 내수 증가 및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한국의 서비스 수출과 중국의 서비스 수입에 대한 평균 성장률 및 상관관계를 비교하면 <표 3-14>와 같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은 <그림 2-17>에서 보듯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 수입 성장률은 다소 하락한 반면 한국 수출 성장률은 급락하였다. 그런데 금융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품(업종)별 중국의 수입액과 한국의 수출액 간의 상관계수가 높아서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는 결정계수가 높음을 의미하여 모형이 양호하게 데이터를 적합시킴을 뜻한다.

〈표 3-13〉 중국 최종소비(가계)가 산업별로 한국에 미친 영향

(단위:%)

산업(세부분류)		전체기간 (1995년-2015년)	금융위기 이전 (1995년-2007년)	금융위기 이후 (2008년-2015년)
전 산업		0.37 (0.00)	0.52 (0.00)	0.24 (0.01)
제조업		0.55 (0.00)	0.76 (0.00)	0.44 (0.03)
비내구재	음식료품	0.10 (0.00)	0.18 (0.00)	0.02 (0.00)
	섬유	0.14 (0.00)	0.13 (0.03)	0.22 (0.04)
	목재·종이	0.12 (0.00)	0.12 (0.00)	0.15 (0.19)
	석탄·석유	0.38 (0.00)	0.58 (0.00)	0.24 (0.29)
	화학	0.39 (0.00)	0.57 (0.00)	0.24 (0.14)
내구재	비금속·광물	0.27 (0.00)	0.33 (0.00)	0.20 (0.13)
	1차금속	0.17 (0.00)	0.30 (0.00)	0.40 (0.09)
	금속	0.35 (0.00)	0.64 (0.00)	0.01 (0.96)
	기계·장비	0.54 (0.00)	0.66 (0.00)	0.56 (0.13)
	전기·전자기기	1.15 (0.00)	1.67 (0.00)	0.81 (0.00)
	정밀기기	0.81 (0.00)	1.21 (0.00)	0.74 (0.01)
	운송장비	0.60 (0.00)	0.73 (0.00)	0.38 (0.02)
	기타 제조업	0.34 (0.00)	0.40 (0.00)	0.30 (0.02)
광업		-0.11 (0.00)	-0.09 (0.00)	-0.28 (0.00)
전력·가스·수도		0.45 (0.00)	0.66 (0.00)	0.22 (0.10)
건설		0.01 (0.75)	0.00 (0.90)	-0.17 (0.09)
서비스업		0.34 (0.00)	0.48 (0.00)	0.19 (0.00)
서비스	도소매	0.25 (0.00)	0.32 (0.00)	0.32 (0.20)
	숙박·음식	0.22 (0.00)	0.38 (0.00)	0.05 (0.14)
	운수·보관	0.37 (0.00)	0.51 (0.00)	0.29 (0.12)
	금융·보험	0.38 (0.00)	0.48 (0.00)	0.15 (0.09)
	부동산·임대	0.28 (0.00)	0.42 (0.00)	0.12 (0.00)
	정보통신업	0.68 (0.00)	1.17 (0.00)	0.22 (0.00)
	출판·영화	0.52 (0.00)	0.75 (0.00)	0.29 (0.02)
	사업서비스	0.43 (0.00)	0.59 (0.00)	0.20 (0.00)
	기술서비스	0.39 (0.00)	0.49 (0.00)	0.18 (0.00)
	교육서비스	0.26 (0.00)	0.36 (0.00)	0.07 (0.02)
	보건·사회복지	0.31 (0.00)	0.30 (0.00)	0.31 (0.00)
	문화기타서비스	0.35 (0.00)	0.51 (0.00)	0.13 (0.03)

주: ()안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내는 P값을 의미함.

아울러 중국 수입의 경우 관광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운송업, 보험업, 금융업 등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수출의 경우는 관광업(중국 관광객 증

가 등)과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를 제외하고 운송업, 건설업(해외 공공시설 건축·건설 등), 보험업, 금융업 등의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였다⁶⁾.

〈표 3-14〉 중국 서비스 수입과 한국 서비스 수출 간의 현황(2000년대)

(단위: %)

서 비 스 업		성 장 륜		상관관계 (한·중 상품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한 국	총 수 출	15.0	1.9	0.89
	운 송 업	16.9	-2.2	0.86
	관 광 업	6.3	7.3	0.87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	19.8	22.3	0.97
	건 설 업	42.5	2.0	0.67
	보 험 업	49.7	8.7	0.87
	금 융 업	20.6	-2.6	0.31
	지적재산권	19.6	15.5	0.96
	기타 서비스	11.1	6.6	0.95
	개인·문화·오락	23.6	15.5	0.86
중 국	총 수 입	20.6	17.3	0.89
	운 송 업	22.1	7.5	0.86
	관 광 업	13.9	36.0	0.87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	36.9	15.0	0.97
	건 설 업	21.8	19.1	0.67
	보 험 업	23.1	1.2	0.87
	금 융 업	69.1	45.7	0.31
	지적재산권	30.6	11.7	0.96
	기타 서비스	24.6	1.8	0.95
	개인·문화·오락	38.7	36.8	0.86

주: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전과 이후로 비교함.

금융위기 이후 중국 최종소비의 국내 영향력이 급감하였으며, 한국의 총생산과 총부가가치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영향이 급감했지만 산업별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최종소비가 한국에 미친 산업별 영향을 요약하여 그 의미를 주요 원인별로 비교해서 정리하면 <표 3-15>와 같다.

6) 정보통신업(ICT)은 한국은행에서 분류한 항목인 반면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전자정보(Information service)는 UN Comtrade DB에서 분류한 항목으로 명칭은 상이하지만 내용을 동일한 것임.

〈표 3-15〉 실증분석 결과 요약⁷⁾

산 업	한국의 증가 산업	한국의 감소 산업	원 인
비내구재	섬유, 목재·종이	석탄·석유, 화학, 음식료품	중국의 내수용 소비재 수입 증가 및 한국의 수출가공형 중간재 수출 감소
내구재	1차 금속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중국의 내수용 원부자재 수입 증가 및 내구재 내수 증가율 감소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도소매,	정보통신업, 출판·영화, 금융·보험 등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첨단기술 육성 및 서비스 수입 증가
	관광업의 수출	운송, 건설, 보험, 금융업 등의 수출	상 동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수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첫째, 비내구재의 경우 중국의 내수 소비재의 수입증가로 인해 섬유 및 목재·종이 산업은 영향이 증가한 반면 한국의 수출 가공형 중간재 수출의 감소로 인해 석탄·석유, 화학 등의 산업은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구재의 경우 중국의 내수용 원부자재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 1차 금속은 영향이 증가한 반면 중국의 내구재 내수 증가율 감소로 인해서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의 산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첨단기술 육성 및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 관광업, 도소매 등의 산업에 미친 영향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첨단기술 육성 때문에 국내 정보통신업 등에 영향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금융·보험 산업은 중국의 서비스 수입이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의 감소로 인해 그 영향이 감소하였다.⁸⁾

7) 이 분석 결과는 탄력성 개념의 수치를 의미하며, 2장 추이분석 결과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정성훈(2016)의 결과와도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 이 결과에 대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성훈(2016)의 결과는 2014년도 IOTable을 이용하여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화학, 금융, 운수·통신이 증가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2장 추이분석에서는 사업서비스, 금융 및 부동산업, 음식료품이 크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정보통신업은 〈표 3-13〉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도출되어 한국의 감소산업임.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는 〈그림 2-18〉과 〈그림 2-19〉에서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최근 상승한 추세 및 〈표 3-14〉의 성장률 측면에서 상승률이 약간 높아졌음을 단지 나타내고 있음.

IV.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 관리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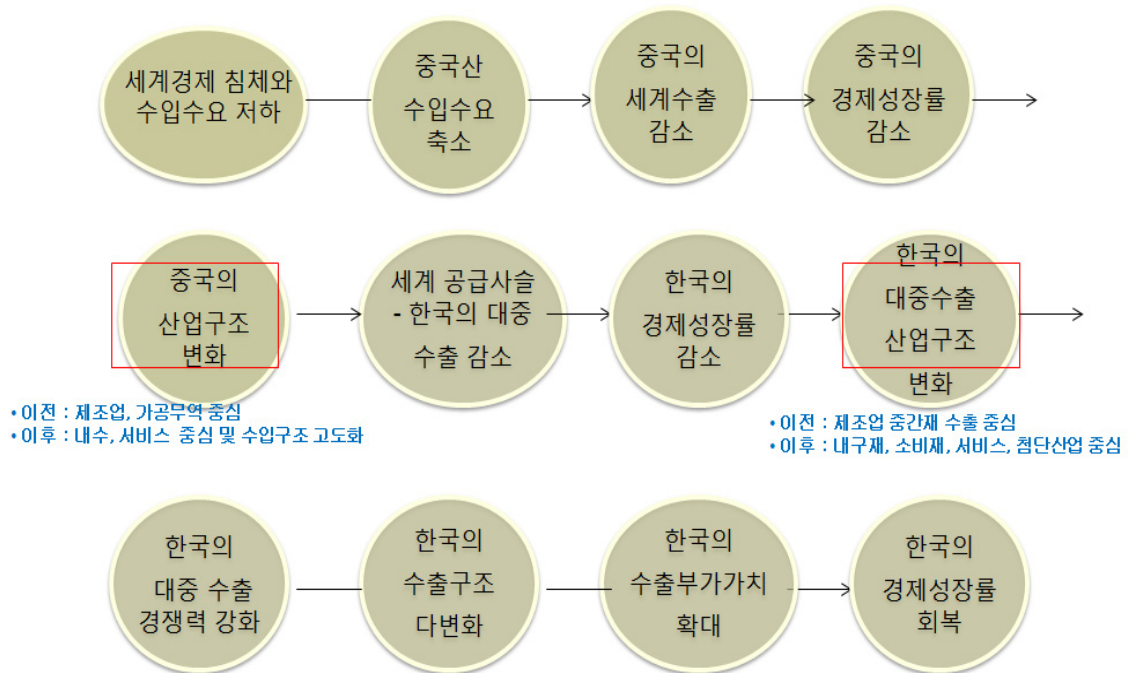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중국 내수와 수입 및 무역이 산업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 수출산업이 대응할 기대되는 역할에 관해 알아본다. 먼저, 중국 수입시장의 구조와 한국의 대중 수출구조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3장의 분석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1. 중국 수입시장과 한국 수출산업의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두 가지 측면, 첫째,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최종수요의 구조적 변화, 둘째, 생산 및 수입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구분해서 한국경제의 수출 산업별 영향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중국의 주력 신산업의 성장에 따른 영향을 전망한다.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수출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Flow Chart는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한국의 수출 강화와 성장 지속성



세계경제 침체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저하되어 중국의 대외수출이 저하되

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 가공무역 중심에서 서비스, 내수 산업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저하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 따라서 한국은 대중국 수출구조를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수출 중심에서 소비재,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대중국 중심 수출구조의 다변화, 산업구조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 수출경쟁력의 유지 및 강화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은 EU, 일본, 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이 둔화되어 총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 둔화, 투자를 감소 등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성장패러다임을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와 내수의 진작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내수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산업 고도화를 전략 목표로 삼고, 신형 정보산업, 신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등의 7대 전략적 신형 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혁신 및 스마트 기술의 접목을 기본원칙으로 산업구조의 최적화 등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핵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 및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인터넷, 항공우주정비, 신소재 등을 육성하려는 ‘중국제조 2025’를 실행하면서 한국의 수출상품 경쟁력이 전통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중국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중국의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최근 특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첫째, 가공수입의 경우, 중국은 가공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현지 조달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박진우(2016)에 따르면, 2005-2015년 동안 가공수입의 비중은 17.7%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현지 조달률은 9.8% 증가했다. 단순 임가공 위주의 무상수입 가공무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상수입 가공무역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체 가공수입 중 유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9.5%로 증가세를 보였다. 즉, 한국은 대중국 가공수출의 비중이 높는데, 한중 가공무역이 고부가가치화 되면서 무상수출은 감소하고 유상수출이 늘고 있다.

둘째, 중간재수입의 경우,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석유, 화학, 금속 등 반제품의 경우 국내 자급율의 증가에 따른 수입산 대체가 증가하므로 향후 수입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부품·부분품은 소폭으로 증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외수입이 2015년도에 전년 대비 18.4% 감소한 가운데

중간재 수입이 53.4%를 차지하나 반제품(석유, 철강, 알루미늄 등의 제품)은 현지 생산의 확대에 의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2015년도 점유율은 15.8%로 증가하는 추세이다⁹⁾.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수출에 과도하게 편중된 가운데, 반제품 수출은 현지의 철강·석유화학 등부터 첨단산업까지 중간재의 수입 대체로 감소하지만 국내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부품·부분품(집적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등)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조업 고도화 진전으로 정부의 고부가가치 투자의 증가에 의해 최근 10년간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수입구조의 업그레이드는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상승함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부품, 광학기기 등의 수입 비중이 증가해왔다.

한국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의 구조변화는 섬유 의류 등 저기술 제조업의 수출 비중이 1994년 32.4%에서 2014년에 8.6%로 감소했다. 자동차, 화학, 소재 등 중기술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44.5%에서 10.8%로 감소했다. 그러나 고기술 제조업의 수출 비중은 1994년 10.8%에서 2008년에 48.7%로 상승 추이를 거친 이후 2014년에는 28.8%로 감소했다¹⁰⁾. 이는 비제조업품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소비재수입의 경우, 중국 소비자의 소득증가에 힘입어 소비재 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TV카메라·디지털 카메라, 의약품, 미용·화장품, 유아용 조제식품, 의류 등의 일반 소비재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 같은 수송 소비재의 수입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일반 소비재 수입에서 한국의 비중은 5.9%로 일본에 비해 앞서고 있으나, 수송 소비재는 2.5%로 일본에 크게 뒤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무역수입에서 소비재 비중을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¹¹⁾.

다시 말해, 중국의 소비재 수입 비중이 2015년에 9.2%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소비재 비중은 승용차 등의 현지 생산의 확대에 2005년 6.6%에서 한국의 2015년도 점유율은 4.8%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일반 내구성 소비재(디지털카메라, 플라스틱제품, 냉장고, 믹서기 등의 제품)의 대중 수출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인터넷 보급이 증가하여 온라인 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시장이 생활용품 거래와 해외직구를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언하면,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과정에서 두드러지

9) 박진우(2016)를 참조함.

10) 박진우(2016)를 참조함.

11) 박진우(2016)를 참조함.

는 것은 온라인쇼핑의 급속한 확장세이다.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B2C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의 해외직구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중국인을 일컫는 ‘하이타오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이다.

〈표 4-1〉 중국의 수입구조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최근 특징

분 야	중국의 수입구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수입증가	수입감소	수출증가	수출감소
가공수입	일반수입, 고부가가치품목, 유상수입 가공	단순 가공무역, 무상수입 가공	유상수출 가공	무상수출 가공
중 간 재	고부가가치품목	반 제 품	부품·부분품, 고부가가치품목	반 제 품
소 비 재	일반 소비재, 수송 소비재, 온라인 해외직구	-	일반 내구소비재	-
서 비 스	관광업, 보험·금융,	운송, 기타서비스	관광업	운송, 건설, 보험·금융, 전자통신·컴퓨터· 전자정보

〈표 4-1〉에서 보면, 한국의 수출구조는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해 동조화 정도에 있어서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구조를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되도록 동조화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표 3-15〉의 중국 내수의 성장이 한국 산업에 미친 영향 변화를 고려해보면, 금융위기 이후는 이전에 비해 중국 최종소비의 영향력이 급감했고, 이로 인하여 한국은 총생산과 총부가가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제조업도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 비내구재의 경우 음식료품 등은 영향력이 급감하지만 섬유 등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비내구재의 경우 중국 내수의 영향이 전기·전자기기 등에서 급감했지만 1차 금속은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도소매, 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업 등 대부분 서비스에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산업은 수출이 양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양보다 질적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수출을 모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대중국 수출의 경쟁력과 수요적 요인을 고려하여 중국 내수 확대의 영향력이 커진 수출산업은 수입수요를 더 활용하고 영향력이 작아진

산업은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이 절에서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증분석결과 및 기존 연구의 주장들을 검토해보고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70년대 말 개방정책 이후 중국은 고속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성장동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으로 관세율이 낮아지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1992년 3.43%에서 2015년에 26.5%에 달했다. 중국의 WTO규범 준수, 수입관세 축소나 면제 등은 가공무역을 촉진하고 저 노동 비용은 이를 유인했다. 그 결과 2001년에서 2007년 동안의 중국 총 수입의 40%가 가공용 수입이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게 고기술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은 구미지역으로 최종재를 수출하는 세계의 가공센터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 고속성장을 이루었던 수출 중심의 성장 동력은 세계적 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쇠퇴하였다. 이제는 5-7%대의 중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종 내수 부양정책의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내투자는 현재 과도한 수준으로 장래에는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비내구재 위주의 내수 성장에서 내구재 중심으로, 최근에는 서비스 중심의 내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값싼 노동력 대신 기술력에 바탕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교역관계가 과거의 상호 보완적이고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이고 수평적 분업의 관계로 이행되면서 양국 간의 수출입 품목이 더욱 유사성을 가진다. 2010년대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상당수 일치하는데 이는 한중 간 교역구조가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중국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IT·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첨단 IT 및 전자부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전자제품 등의 수출 주력 품목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기업들은 최종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도 중국 수출을 강화해야한다. 산화제한 완화에 따른 유아용품 수요가 증가하는 엔젤산업 등을 공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 거점 도시들을 내수시장의 진출기회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급성장하는 해외직구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 혹은 국내 제조업 수출의 기회를 확대시킨다. 정지현(2016)에 의하면, 기업의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고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중국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국 구매가 34% 이상임을 감안할 때 전자상거래로 소비재 수출을 증대할 여건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50%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는 여전히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중국의 해외직구 확대는 매우 두드러져서 2018년에는 4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는 곧 한국기업에게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의 수출은 국내 업체들에게 한정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며,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낮은 물류비용,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무관세 혜택, 한류의 효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민정(2016)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고 있다. 2014년도 전자상거래 규모는 12.3조 위안이고 온라인 쇼핑규모는 2.8조 위안을 기록했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2014년 9월-2015년 8월 기준 108.3백만 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2.2%에 달하며,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의류, 뷰티제품, 패션용품 순이었다.

선진국에서는 GDP 총액 중 3차 산업의 비중은 보통 70%가 넘지만 중국은 아직 50%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산업구조의 조정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1, 2, 3차 산업의 연간 누적치 기준 GDP 성장률을 보면 2015년 말에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의 성장률보다 2%가량 높은데, 이는 2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중국이 서비스산업을 개방 및 집중 육성함에 힘입어 문화콘텐츠와 의료바이오, 프랜차이즈, IT서비스 등의 협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 관광, 금융, 물류, 소프

12) 김민정(2016)을 참조함.

트웨어, 의료, 콘텐츠, 유통 등 8대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여건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한국의 수출산업별 대응방안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4-2>와 같다.

이를 정리해 보면,

(1) 중국이 성장둔화로 경기 부양, 내수 중심 산업화, 산업 고도화, 국내 완결형 산업화로 변모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대외 경쟁력 약화와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라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축소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가공무역과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았지만 향후에는 중국의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구조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내수용 수출, 첨단산업 수출, 서비스 수출로의 전환 및 확대가 요구된다.

(2) 중국의 내수 수입수요에 대응한 대중국 수출의 경우, 수입수요가 증가한 내수용 소비재, 내수용 원·부자재 등의 산업에 대해 수출산업은 수입수요를 더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반면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가공·수출형 중간재 등의 산업은 경쟁력을 개선 및 판로를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내수용 부품·부분품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수입수요가 급증하는 전기 장비, 화장품 등의 소비재 시장에는 진출 확대를,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화학 분야는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 차별화를, 그밖에 수출업종의 다변화 및 대만(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제품 관련 부품·부분품 시장)과 일본(화학제품 관련 반제품 시장)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재 수출확대(관련 부품·부분품과 자본재)와 내수용 수출확대(부품·부분품 중간재, 내구재 소비재)를 강조해야 한다. 또, 전자통신, 화학, 기타기계·장비 등 업종의 수출구조는 다변화 및 차별화하고, 의약품, 의류 등 업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중국의 기술고도화에 대한 첨단산업의 수출의 경우, 수출경쟁력 높은 산업의 개발과 고급화(첨단제품 개발 수출, 중간재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강조된다. 중국의 ‘제조 2025’계획은 차세대 인터넷, 항공우주정비, 신소재 등의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서 한중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기업들이 진출할 기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중 기술협력을 통해 첨단기술의 육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중간재와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4)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에 대응한 서비스 수출의 경우, 제3차 산업 간의 융합발전을 이루어야만 서비스업의 외면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할

〈표 4-2〉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분 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한국의 수출산업별 대응	
		대중 수출구조 변화	향후 대응 방향
경 제 여 건	성장둔화로 경기부양, 내수중심 산업화, 산업 고도화, 국내 완결형 산업화	글로벌 가치사슬 축소로 대중국 수출 감소	내수용, 서비스, 첨단산업 수출로 전환
최 종 수 요	내수 확대와 인프라 투자 증가	중국의 한국제품 수입비중 하락	소비재 수출 확대
	내수소비재 수요증가 : 집적회로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와 가전제품 등	내수용 소비재의 중간재 수출 증가	관련 부품·부분품과 자본재의 수출 확대
	내수용원부자재 수요증가 :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등	내수용 원부자재의 중간재 수출 증가	관련 부품·부분품과 자본재의 수출 확대
	소비시장 확대 : 일용품 수입 증가, 온라인쇼핑 급증 등	의류, 뷰티제품, 패션용품 등 최종 소비재 수출 증가	유통망 확보된 전자상거래로 수출 확대
생 산 수 입	가공무역 비중 감소 및 국산화율 제고	가공무역 점진감소와 일반무역 점진증가	내수용 수출 확대
	중간재·자본재 수입비중 감소 : 반제품(화학, 금속) 급감, 부품·부분품 소폭 증감 등	내수 가공용 중간재 수입의 점유율 하락 : 반제품 감소, 부품·부분품 소폭 증가 추세	부품·부분품 중심의 내수용 중간재 수출 강화
	소비재 수입비중 급증 : 승용차, 비내구재 등	내수 가공용 소비재 수입의 점유율 하락(내구재만 상승)	비교우위 높은 내구재(컴퓨터·전자기기 등) 포함한 내수용 소비재 수출 확대
업 종	주요 수입업종 : 전자통신, 화학, 기타기계·장비 비중 감소	관련 업종의 수출비중이 높음(화학 제외)	관련 수출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
	주요한 여타 수입업종 : 코크스·석유정제품, 의약품, 의복 등의 비중 증가	의약품, 의복 등 수출비중 급증	관련 업종의 수출 지속적 확대
신산 업	서비스업 집중지원 및 첨단기술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산업내 교역으로 전환	수출경쟁력 높은 산업의 개발과 고급화
	고부가가치 기술력 상품 개발 주력(인터넷기업 등)	관련 산업의 수평적 분업관계 및 협업	디지털 전자제품 등 첨단제품 개발 수출
	서비스업의 내수 증가 및	중국 수요로	중간재 서비스 개발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서비스산업의 총수출 성장률 증가(부동산 제외)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	--------------	---------------------------------	-------------------

수 있고 나아가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와 농업의 현대화를 위해 확실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와 관광업 등의 수출은 지속 확대하고 수입수요가 낮은 여타 서비스는 중간재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업은 독점과 시장관여 배제, 투자심의 개혁, 신용제도 건설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현대적인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배양할 것이다. 최근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011년 44.3%에서 2015년 50.5%로 상승하는 등 중국 경제에서 3차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은 2012년 이후 연속 3년 동안 서비스 산업이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서고, GDP 대비 처음 50%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 제품 고급화와 소비패턴 변화 대응 및 온라인 거래를 통해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재 수출의 증대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재 고급화를 위한 현지화 및 브랜드 전략을 마련하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의 소비재시장에서 유럽의 프리미엄 소비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함께 현지화를 통한 사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중국내 한류 열풍으로 한국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인지도 제고의 노력과 함께 급증하는 모조품의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수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 증가로 온라인 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중국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50-200 위안 정도의 일상 생활용품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각종 한중 FTA 활용성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통관, 서비스 개방,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이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원산지 증명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수혜품목인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48시간 통관 시행의 현실화 및 현지 유통망의 연계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1. 내용 요약

중국 경제는 지난 약 30년 동안 성공적인 수출주도형 경제개방정책에 힘입어 고속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최근 성장세가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최근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 수요 부족을 겪고 있는데다가 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앞으로는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중국 내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예전만큼 가격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최근 성장속도의 둔화와 함께 그에 맞는 적절한 경제구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투자에서 소비가 주도하는 내수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무리한 고속성장보다는 5-7%대의 안정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한 산아제한 완화, 신 도시화 건설, 인프라 투자, 공급측면의 개혁 등을 새롭게 강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성장 동력의 확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경제, 산업 및 정치,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의 발전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병행 추진하고,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중속성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구조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무역구조의 혁신을 계획·실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수출에 있어서는 무역 대국(大國)에서 무역 강국(強國)으로의 전환 기초를 내걸고, 값싼 노동력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14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 다음으로 큰 내수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소비수준 향상과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될 잠재적 시장규모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중국 경제 변화를 배경으로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중국의 국내 최종수요가 얼마만큼 성장해 왔으며, 그 최종수요 및

산업별 수입생산의 구성의 변화가 어떠한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수의 성장과 구성 변화가 한국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한국과 중국이 중심된 국제적 분업관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각 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중국의 산업구조 및 주요 경제·산업 정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종소비와 투자의 급증으로 내수 산업이 크게 확대되고 그 중 제조업은 식료품과 기계·금속, 자동차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질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 금융 및 부동산업 등 큰 규모로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수입시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무역방식별 형태로 구분해보면, 그동안 제조업 수출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가공무역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반무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적 변화도 제1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해온 제2차 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고 제3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2차 산업의 비중을 능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생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내수 산업을 제조업, 서비스업, 전력·가스·수도·건설로 나누어 그 GDP 대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비중이 컸으나, 그 이후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과 전력·가스·수도·건설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내구재 수요 중심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맞물려 중화학 제조업이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의 성장속도 저하로 서비스중심 산업구조 전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조업 감소에는 비내구재 감소에 기인한 바가 크며 내구재는 동기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산업구조변화를 인식하고 사업구조 개편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산업의 특성상 글로벌가치사슬이 심화되어 있는 내구재 산업의 수요 증가가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가치사슬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산업의 경우는 내수증가율이 커도 타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2001년-2015년 기간 동안 중국 수입의 가공단계별 규모 변화를 증가율로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가공무역 수출이 왕성하여 이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급증했으나 위기이후에는 그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최종재와 1차 산품 수요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수입구조도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동 기간 가공단계별 구조를 1차 산품(원자재), 반제품, 부품·부분품, 자본재, 소비재로 나누었을 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제품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다음 1차 산품으로 같은 기간 증가하였으며 부품·부분품은 같은 기간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자본재는 동기간 크게 증가하였고, 소비재는 동 기간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공무역 용도로 수입하는 중간재로 볼 수 있는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의 구성비는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재와 자본재를 합한 최종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제조업품에 대한 세계 수입수요의 저하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정책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 친환경정책 그리고 내수 진작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에서 가공무역의 축소와 일반무역의 증가 변화와도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가공단계별 비중을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을 합한 중간재가 동기간 동안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를 합한 최종재 비중은 동기간 동안 증가하고 있으나 미흡하여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최종재에 대한 수출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산업과 수입구조 변화에 한국의 산업이나 정부정책이 아직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에서 업종별 구조를 살펴보면, 그동안 농림수산업, 광업에 비해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제조업은 점차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업종별 비중도 제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압도적이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제조업은 11%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농림수산업과 광업은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의 대 중국 수출이 중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의 추이를 1992년 이후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 EU는 수입비중이 감소해온 반면, 한국은 그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2015년에는 한국 10.38%, 미국 8.95%, 일본 8.51%, EU 12.45%로 수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으로부터의 중국수입 비중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만큼 한국의 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서비스 무역의 수입액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봐도 1992년 10%를 점하던 것이 2015년에는 22%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서비스무역 수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을 운송, 관광, 보험, 금융, 지적재산권사용료, 건설,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서비스, 개인문화오락서비스, 기타 9개 분야로 나누었을 때, 그 비중의 크기가 관광, 운송, 기타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험, 건설, 전자통신, 개인오락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관광업은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2015년에 62.7%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운송업은 2015년에 16.2%를 점하고 있다. 이는 이제 중국인의 평균소득이 높아져서 해외여행 등 관광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쇼핑 등 택배서비스 증가 등 소비의 증가가 운송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서비스무역 수출 추이를 보면, 그 비중의 크기가 운송, 기타서비스, 관광, 건설 순으로, 운송업은 2000년 44.5%에서 2004년 52.2%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33.7%를 점하고 있고, 기타서비스는 동기간 동안 23.4%에서 2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관광업은 동기간 22.7%에서 17.4%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은 동기간 8.1%에서 13.9%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이를 볼 때 중국의 관광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해외직구를 촉진하여 운송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변화를 최근 발표한 2016-20년 기간 「13.5 계획」을 살펴보면 ‘혁신’을 핵심전략으로 강조하여 혁신적 창업 기회 확대 및 중요소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및 경제 간 융합을 심화하며, 혁신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중점 분야의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는 등 자주혁신 역량을 증강함으로써 혁신형 국가 및 인재강국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최근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발전 전략을 지속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R&D 및 기초연구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국가 재정정책상 과학기술 혁신 지원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혁신 역량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13.5계획」에서 발표한 발전관련 목표를 주요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GDP 대비 R&D 투입 비중을 2015년 2.1%에서 2020년 2.5%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명 특허 보유량과 과학기술 발전기여도도 동 기간 동안 각기 연평균 5.7%, 4.7%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고, 인터넷 보급률도 대폭 높이도록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불균형 확대에 의한 통상마찰과 위안화 절상 압력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공무역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가공무역상품을 금지·제한하고 가공무역 금지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가공무역 억제정책이 다소 완화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 및 산업 정책 변화에도 유의하여 적절히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음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 즉,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최종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생산 및 수입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구분해서 한국경제의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는데 실증적 계량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각 산업들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실증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의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총생산, 총부가가치, 제조업,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으로 각각 0.37%, 0.37%, 0.55%, 0.34%씩 성장함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는 이전에 비해 중국 최종소비의 영향이 급감하여, 한국의 총생산의 경우 0.51%에서 0.24%로, 총부가가치는 0.52%에서 0.24%로, 제조업은 0.76%에서 0.44%로, 서비스업은 0.48%에서 0.19%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가계의 최종소비가 산업별로 한국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금융위기 이전(1995-2000년)과 이후(2000-2015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 비내구재의 경우, 전체기간 동안 중국의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화학(0.39%), 석탄·석유(0.38%), 섬유(0.14%), 목재·종이(0.12%), 음식료품(0.1%)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석탄·석유 및 화학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위기 이후 음식료품은 0.18%에서 0.02%로 영향은 급감하지만 섬유는 0.13%에서 0.22%로 영향력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내수 소비재의 수입증가로 인해 섬유 및 목재·종이 산업은 영향이 증가한 반면 한국의 수출 가공형 중간재 수출의 감소 인해 석탄·석유, 화학 등의 산업은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 내구재의 경우, 전체기간 동안 중국의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에 한국의 정밀기기(0.81%), 운송장비(0.6%), 기계·장비(0.54%), 금속(0.35%), 기타 제조업(0.34%), 비금속·광물(0.27%), 1차 금속(0.17%), 전기·전자기기

(1.15%), 이 증가했다. 특히,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았다. 금융위기 이후 전기·전자기기는 1.67%에서 0.81%로, 정밀기기는 1.21%에서 0.74%로, 운송장비는 0.73%에서 0.38%로 영향이 급감했다. 그러나 1차 금속은 0.3%에서 0.4%로 영향은 증가했다. 또한, 전력·가스·수도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 영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내수용 원부자재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 1차 금속은 영향이 증가한 반면 중국의 내구재 내수 증가율 감소로 인해서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의 산업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업의 경우, 전체기간 동안 중국 최종소비가 1% 증가할 때에 한국의 정보통신업(0.68%), 출판·영화(0.52%), 사업서비스(0.43%), 기술서비스(0.39%), 금융·보험(0.38%), 운수·보관(0.37%), 문화 및 기타서비스(0.35%), 보건·사회복지(0.31%), 부동산·임대(0.28%), 교육서비스(0.26%), 도소매(0.25%), 숙박·음식(0.22%)은 증가한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도소매, 보건·사회복지를 제외하고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에 미친 영향이 대부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첨단기술 육성 및 서비스 수입의 증가로 인해 국내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 관광업, 도소매 등의 산업에 미친 영향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첨단기술 육성 때문에 국내 정보통신업 등에 영향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금융·보험 산업은 중국의 서비스 수입이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의 감소로 인해 그 영향이 감소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서비스업의 내수 증가 및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한국의 서비스 수출과 중국의 서비스 수입에 대한 평균 성장률 및 상관관계를 비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중국의 수입액과 한국의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다소 하락한 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급락하였다. 그런데 금융업과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품(업종)별 중국의 수입액과 한국의 수출액 간의 상관관계수가 높아서 강한 양(+)의 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수입의 경우 관광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운송업, 보험업, 금융업 등이 하락했다. 한국 수출의 경우는 관광업(중국 관광객 증가 등)과 전자통신·컴퓨터·전자정보를 제외하고 운송업, 건설업(해외 공공시설 건축·건설 등), 보험업, 금융업 등의 성장률이 대폭 하락하였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이러한 추정결과를 통해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정부의 각종 내수 부양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수출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내투자는 현재 과도한 수준으로 장래에는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며, 비내구재 위주의 내수 성장에서 내구재 중심으로, 최근에 서비스 중심의 내수가 급증하고 있고, 저렴한 노동력 대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을 고려하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교역관계가 과거 상호보완적이고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이고 수평적 분업의 관계로 이행되면서 양국 간 수출입 품목이 유사성을 가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상당수 일치하는데 이는 한중 간 교역구조가 산업간 교역에서 산업 내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아직 비교우위에 있어 대중국 수출의 확대가 가능한 IT·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첨단 IT 및 전자부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전자제품 등 수출 주력품목의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숙련노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2)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와 함께 급성장하는 해외직구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 혹은 국내 제조업 수출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 쇼핑이 큰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2.2% 정도에 달하며,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의류, 뷰티제품, 패션용품 순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를 보다 공략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수출의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의 네트워크 구조를 고려하여 산업별 가치사슬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 선진국에서 GDP 총액 중 3차 산업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70% 이상이지만, 중국은 아직 50%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제조업 못지않게 서비스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한국은 제조업 수출 부가가치에 대한 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운송기기 산업을 제외하고 낮은 편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중국이 서비스업 관련 산업을 개방 및 집중 육성함에 힘입어 문화콘텐츠와 의료바이오, 프랜차이즈, IT서비스 등의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 관광,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의료, 콘텐츠, 유통 등 8대 서비스 산업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최종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중국 수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산아제한 완화에 따른 유아용품 수요 증대가 예상되므로 불황을 모른다는 유아 대상의 엔젤산업 등을 공략할 뿐 아니라 새로운 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 거점 도시들을 내수시장의 진출기회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4) 중국정부의 『13.5 계획』에 따라 친환경, 농업현대화, 에너지, 인터넷 기업, 서비스업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 분야에서 우위를 지니고 있어 『13.5 계획』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산업구조 전략, 특히 '중국제조 2025' 및 '서비스업 육성' 정책 중 주요 산업군에서 한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한중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중간재 및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아울러 중국의 내수시장 구조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생산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내구재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추세에서 서비스는 제조업품의 중간재, 제조업품은 서비스의 중간재로 사용됨을 활용해 중국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며, 중국으로의 서비스 확장시 어느 계층을 상대로 할 것이냐는 식별도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소득 계층의 존재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생산의 효율화, 공정과정 혁신과 연료 사용 절약 등에 대한 자구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FTA,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중국 금융시장 개방 등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해하는 각종 국내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중국의 경제여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수출산업별 대응방안을 요약해보면, 중국이 성장둔화로 인해 경기부양, 내수중심 산업화, 산업 고도화, 국내 완결형 산업화로 변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는 글로벌 가치사슬 축소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내수용, 서비스, 첨단산업 수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재 수출확대(관련 부품·부분품과 자본재), 내수용 수출확대(부품·부분품 중간재, 내구재 소비재), 수출

경쟁력 높은 산업의 개발과 고급화(첨단제품 개발 수출, 중간재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이 강조된다. 또한 전자통신, 화학, 기타기계·장비 등 업종의 수출구조는 다변화 및 차별화하고, 의약품, 의복 등 업종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의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기초자료 DB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조 변화 추이와 특징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제조업 뿐만 아니라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구조변화도 분석하고 있고, 연구방법도 산업연관 구조모형에 기초한 장기균형관계를 사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나누어 산업별 영향의 구조 변화를 양적 수치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이러한 추정모형의 한계를 개선하고 세부 산업별로 산업정책을 설정하는데 요구되는 미시 추정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그리고 중국이 공급사슬에서의 생산 분할의 글로벌 시스템에 참여할 때와 내수 중심으로 그렇지 못할 때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아울러 본 연구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수출과 투자 등 교류에 관한 큰 틀에서의 산업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앞으로 이를 보다 실천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시적인 측면의 중국 진출을 위한 정부정책과 기업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과 체결한 FTA의 영향과 그 활용,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등도 한국과 중국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로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대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전략과 정부정책 방향』, KDI Focus』, 2016.
- 김성태·정규철,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KDI 경제전망』 32권 2호, 2015 하반기, 2015. 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지역경제의 산업혁신전략과 한중 동반발전,” 국제 세미나, 2016년 8월 4일.
- 박진우,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2000-2015)』, 전략시장연구실,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연구원, 2016.
- 산업연구원,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 초안과 시사점』, 2015년 11월 27 일.
- 이장규 외,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5-40-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인천발전연구원, 『중국 제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과 특징-산업, 지역, 대외관계』, 2016년 3월 21일.
- 정규철,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KDI 경제전망』, 2014 하반기.
- 정성훈,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KDI 연구보고서』, 2015.
- 정성훈,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국내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 72호, 2016. 9.
- 정지현·김부용,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연구자료 1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최경수 편, 『중국의 경제구조변화와 한국의 기회(상)』, 연구보고서 2015-09, 한국개발연구원, 2015. 12.
-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양회에서 주목할 중국의 경제정책,” 2016년 3월 17일.
- 한진희·최용석, “중국의 부상이 한국 제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199호, 2008. 3
- Bems, R., R. Johnson, and Kei-Mu Yi., “Vertical Linkages and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2011, pp. 308-312.
- Bussière, M., G. Callegari, F. Ghironi, G. Sestieri, & N. Yamano,

- “Estimating Trade Elasticities: Demand Composition and the Trade Collapse of 2008-2009.”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5(3), pp. 118-51, 2013.
- Engle, R. and C. Granger,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Representation, Estimation and Testing,” *Econometrica*, 35, 1987, pp. 251-276.
- Jung, Jihyun, “Structural Changes in China’ s Import Market for Domestic Demand and Implications,” *World Economy Brief* vol.6(27), KIEP, Oct. 26, 2016.
- Lall, S. “The Technological Structure and Performance of Developing Country Manufactured Exports-1985-98,” *Oxford Development Studies*, 28(3), pp. 337-369, 2000.
- Shin, K. and B. Choi, “The Impact of Chinese Economic Structural Changes on Korea’ s Export to China,” *KIEP Working Paper* 16-04, 2016.
- 习近平如何说明十三五规划背景，中国干部学习网， 2016년 3월 23일.
- “十三五”规划期的四大产业发展战略，经济观察，2015년 7월 8일.
- “十三五”规划思路的十大转变，中国网，2015년 4월 17일.
- 201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国家统计局，2016년 2월 29일.

자료(Data)

CEIC, China Premium Database.

ICIO Table

UN Comtrade Database.

WTO Statistics Database.

중국해관총서.

중국통계국.

